

월간 가든인 2월호

February 2016

Gardenin

특집
기사

바쁜 봄이 오기전에 새롭게 정원을 계획하자

GARDENIN LIFE
2
VOL. 34

Gardenin Maintenance

정원사의 일기-정원의 시작은 겨울부터
가든엔맛-종파파상법, 실내 파종시기, 코스모스



Gardenin Plants

Special Issue-벌, 나비크리고 새를 부르는 정원식물 30선
이명호의 아생화-동강할미꽃



Gardenin Design

힐링원예-건강에 도움이 되는 공기정화식물
정원으로의 여행-정원 디자인 컨셉잡기



Gardenin Culture

허브앤테라피-필리핀 일랑일랑 국가프로젝트②
정원과 아이들-안전이 최우선



크리스마스 로즈
(Helleborus)

ISSN 2288-1719



10,000원

Gardenin Information

이달의 추천도서 / 가든디자인의 발견, 서양정원사



에코홀 시스템

(특허 제10-1429481호)



Echo 웬스

광장, 계단, 주차장, 도로중앙분리대, 경계용으로 입체적 디자인이 가능한 신개념 실용화분

Echo 방틀

저수호안의 방틀, 하천호안, 식생호안, 사면보호, 세굴방지, 화분용

구 입 문 의



벽화수주식회사

경남 함양군 안의면 황마로 61-169(황곡리 2191) / T.055-964-7992 F.055-962-7901



Gardenin

Gardenin 월간 2월호

CONTENTS

4 이 달의 포커스 - 칼라관목

Gardenin Maintenance

- 6 식물관리스케치 - 꽃잔디, 하늘매발톱, 상록잔디패랭이, 아주가
- 8 정원사의 일기 - 정원의 시작은 겨울부터
- 12 가든엔씨앗 - 종파파상법, 실내파종시기, 코스모스
- 16 특 집 - 바쁜 봄이오기전에 새롭게 정원을 계획하자

Gardenin Plant

- 20 산타벨라가 들려주는 화초이야기 - 프리물라
- 22 정원속보이네 - 망초, 쑥부지깽이, 에리카, 에린지움
- 26 Special Issue - 벌, 나비 그리고 새를 부르는 정원식물 30선
- 34 관목시대 - 로니세라 & 코트너아스터
- 38 정원화로 좋은 우리야생화 - 봄맞이
- 42 테마가 있는 식물이야기 - 호스타, 무늬큰고랭이, 털수염풀, 금강애기리튬초, 보리지, 바질
- 46 이명호의 야생화 - 동강할미꽃

Gardenin Culture

- 48 생활 속의 도시농업 - 겨울철 실내외 식물 관리
- 52 허브앤테라피 - 필리핀 일량일량 국가프로젝트 ②
- 54 정원과 아이들 - 안전이 최우선
- 56 세계의 식물원 - 위슬리 가든
- 58 정원을 꿈꾸는 사람들 - 미야의 정원(아파트 베란다 정원)
- 62 특 집 - 옥상텃밭

Gardenin Design

- 64 힐링원에 -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공기정화식물
- 68 가든인칼럼 - 조경의 완성미를 위해 규격포트로 변화를 주어야 한다.
- 72 정원로의 여행 - 정원 디자인 컨셉 잡기
- 75 실내정원의 크래프트 - 자연부산물을 이용한 모빌
- 76 COLOR IN THE GARDEN - Red Flowers

Gardenin Information

- 80 가든인 생생정보
- 81 GARDEN & BOOK - 가든 디자인의 발견, 서양정원사

칼라 관목



말채나무 윈터파이어
Cornus sang. 'Midwinter Fire'



국수나무 슈크
Physocarpus opulif. 'Schuch'



블루애로우향
Juniperus scop. 'Blue Arrow'



황금개나리
Forsythia int. 'Gold'



매자나무 레드로켓
Berberis thunb. 'Red Rocket'



매자나무 핑크퀸
Berberis thunb. 'Pink Queen'



병꽃나무 빅토리아
Weigela flor. 'Victoria'



조팝 골든바
Spiraea prunifolia 'Golden Bar'



이테아
Itea virginica 'Henry's Garnet'



블루카펫향
Juniperus squamata 'Blue Carpet'



골든카펫향
Juniperus squamata 'Golden Carpet'

우리의 정원은 아름다운 잎과 줄기를 자랑하는 칼라관목들이 있어 더욱 행복합니다. 잎의 색감과 질감이 좋아 봄부터 가을까지, 상록성은 겨울까지도 사랑받는 정원의 유망주입니다. 점점 더 우리곁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식물관리 스케치

글 사진 편집실



퇴비살포, 잡초제거

모든 식물은 지력, 즉 토양속에 충분한 양분이 있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 병충해에 잘 견딜 수 있고 크고 아름다운 꽃도 피울 수 있다. 인간이 충분한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여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이치와 크게 다를바 없다. 해가 지나면서 토양의 지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양분을 공급해주어야 한다. 양분을 공급하는 시기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때가 겨울 휴면기이다. 퇴비로는 흔히 부엽토, 잘 완숙된 돈분 등을 사용하면 좋고 식물생육기에는 아무래도 살포하고 난 후 며칠간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식물커

팅시기에 깔끔하게 커팅하고 퇴비를 살포하거나 위에서 말했듯이 겨울휴면기에 살포하면 미관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겨울휴면기에 퇴비살포는 비단 봄꽃식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식물에 충분히 살포해주는 것이 그해 생육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미처 제거해주지 못했던 잡초가 정원에 있다면 이른 봄 제거해주는 것이 좋다. 대부분 로제트형태로 있기 때문에 가위 등을 이용하여 줄기와 뿌리가 맞닿는 부분을 잘라주면 쉽게 제거가 가능하다. 더 크기전에 제거해주면 시간도 절약하고 정원식물의 생육도 좋아지게 된다.



이른 봄 정원식물 사이에 자리잡은 잡초



줄기와 뿌리가 맞닿는 부분에 가위를 넣어 잘라준다.



제거된 잡초

꽃잔디

꽃잔디는 제일 먼저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식물이다. 말 그대로 꽃방석을 이루며 봄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흔히 식재해왔던 일반 꽃잔디는 꽃이 지고난 뒤 잎이 지저분해지는 단점이 있다. 그 이유는 잎자체가 늘어지며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하고현상이 일어나고 식재된지 몇해가 지나 씨들은 경우에 안쪽에 질크러지기 때문이다. 이런점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씨들은 경우 꽃이 지고난 후 가위로 중간중간 솎아내어 통풍이 잘 이루어지게 하고 장마 전후로 살균제 처리를 하면 좋다.

일반 꽃잔디의 이러한 단점을 커버해줄 수 있는 품종이 꽃잔디 레드킹, 에메랄드이다. 잎의 절간이 짧고 진녹색의 깔끔한 형태를 항상 유지하여 꽃이 지고 난 후에도 푸르름을 선명하게 유지한다. 특별한 관리가 필요없이 아름다운 꽃과 잎을 감상할 수 있는 꽃잔디 품종이다.



레드킹



에메랄드

상록잔디패랭이

장기개화형의 패랭이 품종으로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좋은 꽃을 볼 수 있음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꽃이 만개하고 초여름으로 들어서면서 꽃이 절때쯤 꼬투리가 지저분해 보이므로 전정가위 또는 동력전정기로 전정해주면 깨끗해 보인다. 이때 식물체 주변에 퇴비를 살포해주면 다음 개화시 좋은 꽃을 볼 수 있다. 식재시 유의할 점으로는 토양이 배수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패랭이류는 습에 약하기 때문에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마기에 질크러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장마이후에 이상징



많은 꽃을 피우기 때문에 양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후가 보이면 지표면과 맞닿아 있는 식물체 부위를 살펴보자. 이때 하얀 실처럼 엉켜져있는 곰팡이가 있거나 썩어들어가는 흔적이 보이면 바로 적용살균제를 식물체 위와 아래부분에 골고루 살포해주어야 한다. 가끔 도로변 또는 중앙분리대 등에 식재된 후 첫해는 좋았다가 갑자기 다음해에 생육이 안좋은 경우가 드물게 있는데 이럴때는 극건조가 오지 않았는지, 충분한 양분 공급을 해주었는지, 배수가 원활한지 반드시 체크해 보아야 한다.

매발톱

복식물로 화단용, 분화용으로 많이 심는 대표적인 식물이 매발톱이다. 우리나라 자생종으로 하늘매발톱이 많이 식재 되었는데 보라색꽃이 매우 아름다운 분만아나리 하얀 백분이 묻은 듯한 잎도 관상가치가 뛰어나고 생육이 강건하기 때문이다. 꽃이 지고난후 잎이 무성하면서 지저분해지며 과감히 잎 전체적으로 잘라주면 며칠이 지나면 바로 새순이 올라와 가을까지 잎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메카나, 스코트매발톱 등 외국품종의 매발톱류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매우 화려하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반면에 일부 품종은 꽃이 지고난후 생육면에서는 자생종 매발톱류에 비해 약한면이 있어 특히 장마전후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날이 더워지면서 잎과 줄기에 진달목이 생기므로 잘 관찰하여 방제해 주어야 한다.



꽃대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

기타 봄꽃식물

샤스타데이지, 숙근사루비아 등은 꽃이 지고 난뒤에 반드시 꽃대를 제때 잘라주어야 주변의 다른 식물이 꽃이 피었을 때 전체적으로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음지의 복식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가류는 대부분 생육이 강건하지만 일반 아주가의 경우 여름에 탄저병이 자주 오기에 미리 예방이 필요하고 런너로 번식하여 주변으로의 침범이 많고 런너가 지면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겨울을 나면서 고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면의 단점을 극복해주어 관리면에서 용이하고 경관적으로도 더 뛰어난 왕아주가를 앞으로는 적용하기를 적극 권장해본다.



왕아주가

정원사의 일기

(Gardener's Diary)

가드너 김시용

전 천리포수목원 근무

영국 The Sir Harold Hillier Garden 연수

영국 RHS Garden, Wisley Diploma in Practical Horticulture Programme 졸업

정원의 시작은 겨울부터...

Betula pendula 'Dalecarlica'

정원사의 일기로 원고를 낸지 어느덧 1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다. 이 잡지를 읽는 독자는 몇 명이며, 정원사의 일기란 코너를 읽는 독자는 몇 명이나 될까? 도움이 되고 있기는 한 걸까? RHS Wisley(영국 왕립원예협회, 위슬리가든)에서 2년의 교육받는지 11년이 지났다.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했던 첫 생각은 수목원이나 식물원에 들어가서 내가 받은 교육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때는 뭔가 큰 교육을 받은 것처럼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랐던 것 같다.



Betula ermanii Korea collection

지금은 작은 농촌에서 마을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집에 식물을 가꾸는 것)을 하려고 한다. 마을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작지만 꼭 필요한 것이다. 집안의 나무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 이 일을 2016년 봄에 열 번 정도 하려는데 벌써부터 설렌다. 마을사람들 또한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으로만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 같은 세상에 분노, 억눌린 감정, 절망을 모두 떨쳐 버리고 기쁨, 평화, 희망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정원사는 겨울이면 어떻게? 정원사의 마음은 겨울이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식물을 어디에 심을지, 이 장소를 어떤 정원으로 만들어 볼까? 하는 마음으로 설렌다. 그 장소에서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하는 일이 설렘으로 끝날 때도 있고, 때론 사람 때문에 짜증이 날 때도 있다.

작년 이때쯤 썼던 내용을 되돌아보면, 겨울철 도구관리에서 톱에 대한 부분, 텃밭정원에서는 설계도와 2월에 파종해야 할 작물들, 그리고 동령수고송(冬嶺秀孤松: 겨울봉우리에는 외로운 소나무만이)이라 겨울철에 빼어난 상록수들에 대해 소개를 하였다.

정원일은 일종의 유지 관리하는 일의 반복이라고 생각한다. 아름다운 수목원, 식물원, 정원이 계속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은 계속해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많은 돈과 시간과 인력을 들여 만든 아름다운 장소도 계속해서 돌봐주지 않는다면, 흉물로 남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본다. 정원



Betula albosinensis



Betula utilis var. *jacquemontii* 'Jermyns'

관리하는 일을 어렵게만 보면 어렵다. 어려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능사가 아닌 각자의 상황에 맞게 꼭 필요한 부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계획도를 만들고 공간계획도를 만들고 조형물위치도, 식물배식도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면 해야 할 일은 많고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이럴 땐 공간에 중심요소를 무엇으로 생각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한 번에 하나씩만...

그 첫 번째는 식물이라고 생각한다. 삭막한 겨울에 외로운 소나무만이 빼어나다고 한 것처럼 식물은 삭막함을 부드럽고 쓸쓸하지 않게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 겨울에 추가 되는 식물을 무엇으로 할지 그리고 봄에...여름에...가을에...

그렇다고 사계절을 한꺼번에 생각하는 것은 복잡하다. 그러니, 이번에는 겨울만을 생각해보자. 겨울에 추가 되는 식물을 상록수로 할 것인지, 낙엽수로 할 것인지, 상록수가 아니면서 겨울을 따뜻하게 하고 오히려 화사하게 만드는 식물 즉, 낙엽수로 생각해보자. 왜냐하면 지난번에 상록수에 대한 소개를 하였으므로...낙엽수 중에는 어떤 식물이 있을까? 먼저 가지의 색깔이 돋보이는 식물을 생각해보면 키가 큰 나무(교목)중에서는 수피가 흰색으로 잘 알려진 자작나무과(Betulaceae)의 자작나무속(*Betula* spp.) 식물을 생각할 수 있다.

국내에는 자생을 포함한 도입식물까지 대략 43종류가 들어와 있다. 자작나무속은 한자명으로는 화목속(樺木屬)으로 불리고, 나무 또는 관목의 낙엽수이다. 눈은 자루가 없고 여러 개의 비닐로 겹쳐져 있다. 잎은 종종 가늘고 길어지고 작은 점이 있고, 잎의 가장자리는 잔 톱니거나 굽은 톱니가 보통이고 드물게는 가장자리가 매끈하다. 수꽃은 길게 늘어지고 여러 개의 얇은 막으로 덮여져 있고, 각각의 얇은 막에는 3개의 수술이 들어 있다. 꽃받침은 4개로 갈라지고 2개의 수술이 있다. 암꽃은 1~2개의 원뿔모양의 꽃차례이고, 가죽 질의 막은 꽃눈을 겹쳐서 있고, 각 각의 막에는 3개의 암꽃이 들어 있다. 종자는 한쪽으로 눌러져 있고 얇은 막의 날개가 있다. 50-60종이 있고,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분포한다. 자작나무는 겹질로 아주 유명하다. 하얗고 윤이 나며 종이처럼 얇게 벗겨진다. 잘 벗기면 손바닥정도의 겹질을 얻기에 어렵지 않다. 옛날에는 자작나무 겹질에 불을 붙여 사용했다.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화축(華:꽃, 燭:촛불)을 밝힌다고 하는데, 그 화축이 자작나무 겹질이다.

또한 화축(樺:자작나무, 燭:촛불)이 있는데, 이것은 자작나무 겹질로 밀(蜜)을 말아서 켜는 촛불이다. 또 자작나무 겹질에 그림을 그리고 글씨도 썼다. 신라의 천마도도 자작나무 겹질에 그린 것이다. 자작나무 목재는 박달나무와 마찬가지로 아주 단단하고 결이 고와서 가구도 만들고 조각도 한다. 게다가 벌레도 잘 먹지 않아서 오래간다. 해인사 팔만대장경 경판의 일부도 자작나무가 재료이다. 또한 자작나무 목재에는 다당체인 자일란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핀란드에서는 자작나무 속의 자일란을 자일로스로 변형시켜 추출한 뒤 정제 및 환원 과정을 거쳐 자일리톨을 만들기도 한다. 자일리톨을 자작나무 설탕이라고도 부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자작나무는 다른 이름에 백서(白書)라고 있는데, 이는 옛날 그림을 그리는 화공(畫工)들이 이 나무를 태워서 그 솜으로 그림이 그렸고, 가죽을 염색(染色)하는 데 사용하면서 유래된 것이다. 속명인 *Betula*는 자작나무의 라

틴어이다. 자작나무의 오일은 러시아 사람들에게 가족에 특별한 향을 넣을 때 사용했다고 한다. 영어명으로는 *Birch*이다.

필자가 자작나무를 본 건 천리포수목원에서이고, 다음에는 자작나무의 아름다움을 본 건 영국에서 공부할 때 인데 이때 보았던 자작나무속 식물을 소개하고 싶다. 영국에서 가장 인상적인 자작나무를 보여주는 곳으로는 영국 남부지방의 햄프셔주에 위치한 해롤드힐리어수목원(Sir Harold Hillier Gardens, Jermyns Lane, Ampfield, Hampshire)을 추천하고 싶다. 지금은 수목원이란 단어를 빼고 정원만 사용한다. 자작나무가 여기저기에 수집이 되어 있었고, 오래전에 수집을 해서 그런지 나무 또한 크게 자라 어떤 녀석들은 웅장하기까지 했다. 여기에서는 영국왕립협회 위슬리정원과 웨이크허스트에서 본 자작나무 식물을 소개한다. 위슬리정원에서는 *Betula albosinensis*(중국흰자작나무)는 자생지가 중국서부이다. 껍질이 벗겨질 때의 색깔은 우유빛이나 분홍색, 구리색을 띄고 잎은 반짝거리는 잎이 있다.

Betula ermanii 'Zao Purple'(사스래나무 '자오 퍼플')은 원종의 자생지는 동북아시아이고 사스래나무의 껍질색이 우유빛 흰색이나 분홍인 반면에 사스래나무 '자오 퍼플'의 껍질색은 초콜렛빛이 나고 옆으로 길게 띠를 두른 것 같다. 잎은 가을에 주황색으로 단풍이 든다.

Betula pendula 'Laciniata'(펜들라자작 '달레카리카')의 원종은 유럽과 북아시아가 자생지이다. 이 나무의 특징은 원종과 같이 수형이 아래로 처지고 줄기의 껍질은 흰색이고 잎은 길게 갈라져있다. 가을에 노랑색으로 단풍이 든다.

Betula utilis var *jacquemontii* 'Silver Shadow'(자쿠에몬티자작 '실버쉐도우')는 자쿠에몬티자작과는 다르게 좀더 작게 자라는 특징이 있다. 또한 수형이 왕관모양으로 자란다.

Betula utilis var *jacquemontii* 'Jermyns'(자쿠에몬티자작 '저민스') 자쿠에몬티자작과는 다르게 좀더 크게 자라는 특징이 있고 원주형의 화서가 17cm정도로 길어서 눈에 잘 띄는 것이 특징이다.

Betula utilis var *jacquemontii*(자쿠에몬티자작)은 자생지가 인도의 북쪽과 네팔의 중서부에 분포한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껍질의 색깔이 흰색으로 대표적인 종이다.

영국 규식물원과 연결된 웨이크허스트에서 본 *Betula ermanii*(사스래나무)는 자생지가 동북아시아 지방으로 우리나라까지 분포한다. 키는 교목으로 자라고 가끔은 여러 개의 줄기가 나오기도 한다. 줄



Betula ermanii 'Zao Purple'



Betula utilis var *occidentalis*



Betula utilis var *jacquemontii* 'Jermyns'



Betula utilis var *jacquemontii* 'Silver Shadow'



Betula utilis var *jacquemontii* 'Silver Shadow'



Betula utilis var *jacquemontii*

기는 우유빛의 껍질이 벗겨지고 가지는 갈색이 난다. 가을에 잎은 노랑색 단풍이 든다.

Betula utilis var *occidentalis*(옥시덴탈리스자작나무)는 자생지가 히말라야 지방이고 국제자연보전연맹의 적색목록(IUCN의 Red List)에 올라와 있는 식물이다.

자작나무의 겨울 줄기의 색깔은 정원에 공간만 있다면 수십그루 모아 식재하고 싶은 식물이다. 그러나 공간이 많지 않다면 독립수로도 식재해도 괜찮은 식물이다. 아이들에게 해를 이야기 거리고 있고, 식물생태에 관심을 갖게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관찰하고 생각하고 가설을 세워보는 연습을 하는데 좋은 식물소재(모든 식물이 다 그렇지만)이다. 식물이 자라 성장하고 저장하고 겨울을 지내는 것 또한 가늠이 불일만은 아니다.

이번 봄이 오면 자작나무를 심어 보면 어떨까?

자작나무의 재배조건은 양토의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심고 양지나 반양지의 심으면 되는데, 크게 자라기 때문에 심을 장소의 지하에 배관이 없고 하늘 쪽에 전선이 지나가지 않아야 좋다. 건조와 습에 모두 강한 특징을 보이고 있고 *Betula pendula*와 같은 경우는 물에 젖어 있는 것도 잘 견뎌낼 수 있다. 특별히 전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자연스럽게 스스로 필요 없는 가지는 잘 정리하는 특징이 있다. 다만 가로수로 심기위해서는 지하고를 확보하기위해 머리높이 아래의 가지는 어린나무일 때 정리해 주는 것이 좋다. 물론 병든 가지, 상처 입은 가지, 교차하는 가지는 모두 잘라내야 한다. 전정하는 시기는 나무가 잠든 시기인 늦겨울이나 초겨울이 좋다.

번식은 씨앗을 뿌려서 하고 가을에 채집하여 겨울에 저장하였다가 2월에 뿌린다. 씨앗은 얇게 뿌리고 살짝만 덮는다. 씨앗생명력이 짧기 때문에 오래된 씨앗은 피한다.



이 시작되기전 3월20일 개화용

구근혼합매트



- ◆ 추식구근과 일년초의 혼성식재
- ◆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경관 연출
- ◆ 매트형태로 식재가 편리

문의 우리꽃영농조합법인 031.634.7990

3월10일~20일 사이에 개화되어 현장설치가 가능한 구근매트 예약주문 받습니다.

가든엔 씨앗

가정에서 식물을 키우는 방법으로는 씨앗을 구매하여 파종해서 기르는 방법과 묘종을 직접 사와서 화분이나 정원에 식재를 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특히 씨앗으로 파종해서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초보자들은 막상해보면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신설된 '가든엔씨앗' 코너에서는 씨앗의 발아, 파종방법, 보관 등 일반적인 씨앗부리기에 관한 내용들과 씨앗으로 재배가 가능한 꽃들을 매월 1품목씩 묶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글 사진 편집실 그림 박미영

1. 종피파상법

씨앗의 내재된 기능들로 인해 어떤 씨앗들은 특별한 조건이 갖춰줘야 발아를 쉽게 할 수 있다. 몇몇 씨앗들은 계속 습기를 유지시켜줘야 하는 단단한 종피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씨앗들은 땅속 미생물 그리고 새나 동물의 소화기관에서 분해가 될 때까지 발아를 하지 않는다. 자연에서 풍화과정은 몇 달이 걸리고 봄이 와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질때까지 발아는 늦춰진다. 만약 이런 종류의 씨앗을 키울 생각이라면 인위적으로 자국을 내거나 긁거나 종피를 뚫는데 이 방법을 종피파상법이라 부른다.

가끔 종피는 자국을 내기엔 너무 부드럽다.

이런 경우 따뜻한 물에 최소 24시간을 넣어 발아에 필요한 수분을 흡수 시켜준다(침종). 그리고 매우 단단한 씨들은 흠집을 낸 후 물에 담그면 더욱 쉽게 발아가 가능하다. 가끔 종피는 그리 단단하지 않지만 발아를 억제하는 화학물질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씨가 나기 전에 물에 넣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파슬리이다. 파슬리 씨앗들은 심기전에 하루나 이틀 물에 침종 시켜야 한다.



1. 큰 씨는 줄, 칼, 면도날로 흠집을 낼 수 있다. 씨의 한쪽 면을 얇게 자르는데 안에 있는 씨앗 유배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한다.



2. 작은 씨를 종피 파상하기 위해서는 중간정도의 사포 2장 사이에 두고 문지른다.

GardenIn TIP

종피파상법이 필요한 식물들

아스파라거스(침종), 근대(침종), 당근(침종), 옥수수(침종)
루피너스(상처낸뒤 침종), 나팔꽃(상처낸뒤 침종), 파슬리(침종),
완두콩(침종), 시금치(침종), 스위트피(상처낸뒤 침종)

좌측부터 나팔꽃, 아프리카나팔꽃, 루피너스, 스위트피, 한련화, 히아신스콩

2. 실내 파종 시기

실내에서 파종하거나 씨를 심는 시기는 그 지역에 늦서리 시기나 식물이 자라는 속도에 따라서 다르다. 천천히 자라는 다년생 같은 식물이나 목본성 식물은 봄의 늦서리 12주 전에 실내에서 시작 할 수 있다. 한해살이 식물이나 야채 같은 경우는 늦서리가 오기전 6주에서 8주전에 파종을 시작한다.

관리 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의 씨앗을 파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내에서 하는 파종을 즐기게 될 것이다. 건강하고 좋은 씨앗을 파종하게 되면 발아율이 높으므로 많이 파종할 필요가 없다.



1. 실내 파종을 위한 재료와 도구들은 상토(무균토양), 화분, 육묘상자, 트레이, 라벨, 물조루 등이 포함된다.



2. 실내에 파종된 다양한 씨앗들이 발아되어 자라고 있는 모습



3. 마가릿, 비올라, 마라고이데스, 오스테오스펠럼 등 일년생 꽃들은 실내에서 일찍 파종해주는 것이 봄에 꽃을 빠르게 보는데 유리하다. (오스테오스펠럼 트레이이 묘종)

GardenIn TIP



너무 일찍 파종하여 아직 외부에 식재하지 못하고 웃자라버린 트레이 묘종

- ▶ 파종은 너무 이른 것 보다 조금 늦는 것이 낫다. 실내에 오래 둔 묘종은 약해질 수 있다.
- ▶ 묘종을 밖으로 옮겨 심을때도 실내 파종과 비슷하게 고려해야 될 것이 있다. 추운 지역에서는 늦서리를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관련책자에 있는 평균적인 날짜로 정한다.
- ▶ 처음에는 작은 씨앗들을 먼저 파종하고 이어서 점점 더 큰 씨앗들을 파종 한다.

3.코스모스(*Comos bipinnatus*)

코스모스는 곤충에 의한 타가수분식물이라서 종자 저장을 위해 특정 종의 순수성을 보존하려면 한 번에 한 종류만 키울 수 있다. 타가 수분이 일어나면 어두운 색이 유전적으로 밝은 색에 대한 우성이다.

대표적으로 4가지 색상이 혼합되어 있는 일반 코스모스와 주황색 또는 노란색꽃을 피우는 황화코스모스가 있는데 자라는 크기와 꽃피는 시기에 따라 많은 품종으로 나누어진다.



코스모스



황화코스모스



황화코스모스



코스모스

GardenIn TIP

- ▶ 황화코스모스 (*C. surphureus*)는 일반 코스모스(*C. bipinnatus*)와 교배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 재배해도 수확시 2 품종에서 종이 바뀔 염려 없이 씨앗을 얻을 수 있다.
- ▶ 원뿔 모양의 씨앗 머리가 익고 건조해지면 씨앗을 수확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것이다.

코스모스 씨앗 정보

- 발아를 위한 최적온도 : 16~22도
- 식재간격 : 왜성종(20~25cm)/고성종(40~60cm)

- 최적온도에서 발아 시기 : 파종후 3일~10일
- 씨앗 보관 : 서늘하고 어두우면서 건조한 곳

수확하기

식물에서 씨앗 머리를 잘라서 씨앗을 분리하기 위해 손이나 종이 사이에 끼워 비빈다. 씨앗을 분리한 후에 저장하기 1,2주일 전에 펼쳐서 말린다.

실내 육묘

1. 코스모스 씨앗을 봄에 실내에 트레이에 파종한다면 늦서리 오기 4주 이전에 파종하는 것이 좋다. 그전에 파종하면 너무 커져서 옮겨 심기가 힘들어진다.
2. 묘종이 2개 이상의 분얼이 나오면 화분 또는 노지에 옮겨 심는다.

Step by Step



건실한 씨앗들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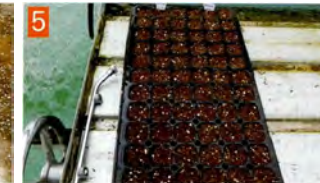
트레이에 상토를 채운다.



트레이 1구에 씨앗 1개씩 파종을 한다.



파종이 끝나면 상토를 덮는다.



제자리에 놓은 뒤 물을 흠뿌린다.



온도가 유지된다면 파종후 3~4일 뒤부터 발아가 되기 시작한다.

노지 파종

1. 코스모스 씨는 일찍 발아하기 때문에 서리가 끝난 봄이면 야외에 바로 파종하는데 문제가 없다. 호광성 발아식물이므로 파종 후 아무 것도 씌우지 않고 발아를 위해 빛을 충분히 받게 한다.
2. 키가 큰 품종은 말뚝이 필요할 수도 있다. 코스모스 모든 품종은 건조기에 물을 줘야 한다.
3. 파종방법



혼파(흙아부림)



점파(일정간격으로 파종)

GardenIn TIP

- ▶ 가을에 야와 파종된 씨앗중 발아가 되지 않은 씨앗은 겨울에 죽지 않고 봄에 발아 할 수도 있다.

여름부터 코스모스를 즐기세요!

왜성코스모스

- ▶ 키가 작아 쓰러지지 않습니다.
- ▶ 파종후 80일후면 꽃을 피웁니다.



구입문의

 우리꽃연구소 031.634. 0328



클 사진 편집실

일반적으로 1~2월은 그해의 정원을 새롭게 계획하고 구성하는 시기이다. 올해에는 어떤 식물을 심을지, 어떤 구조물을 추가할지 나름대로 그 방법에 대해서 노트에 메모하고 구입처와 비용을 알아보기도 한다. 그리고 기대하면서 마음껏 상상을 해본다. 정원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마다 야외에 계획할 수 있는 공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다를 것이다. 화단의 가장자리를 좀 더 활기있게 꾸미거나 보기 싫은 울타리를 가리기 위해 덩굴식물을 식재하거나 더 많은 나비들이 올 수 있게 식물을 식재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계획을 시작하기 전에 원하는 정원의 스타일을 미리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많은 다년생 식물들 가진 정원, 장식적 전정법과 밝고 파스텔 색감의 이국적인 정원, 자연적인 정원 등의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다. 일단 어떤 스타일로 할지 결정하고 나면 어떻게 작업할 것인지 계획을 한다. 새롭게 정원을 계획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몇가지 방법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심을 수 있는 곳이면 어느 장소이든 식물을 길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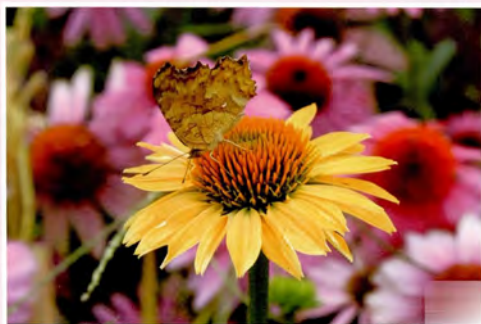
정원의 모든 공간에는 적용할 수 있는 식물이 있다. 나무아래, 울타리 차폐용, 돌틈사이 등 식재가 가능한 곳은 어디든지 계획을 잡아놓는 것이 정원전체를 통일되게 해준다. 나무아래에는 잎의 질감이 좋은 호스타, 대사초 등을 보완하고 울타리에는 클레마티스, 인동 등 덩굴식물을 올려주고 돌틈(석축매지)에도 철쭉이나 회양목 일변도에서 벗어나 향나무류, 매자나무 등 색감이 좋은 다양한 식물을 적용하면 더욱 좋다.



현관앞 디딤석 주변으로 옥잠, 수호초 등이 식재되어져 있다.

2. 나비, 벌과 새를 부르는 식물들을 식재하라.

야생곤충인 나비와 벌 그리고 야생동물인 새들이 정원의 꽃들과 같이 어울린다면 우리의 정원은 더욱 활기가 넘칠 것이다. 새들은 백백하게 들어선 잡목 숲을 좋아하기 때문에 덩굴식물, 관목, 울타리 식물들을 좋아하고 나비와 벌은 그들이 좋아하는 식물들이 있어 이들을 공간별로 적절하게 식재해주면 좋다. (26~32 special issue 참조)



에키나는 나비와 벌, 새들이 모두 좋아하는 정원식물이다.

3. 알맞은 장소에 심어라

각 식물마다 자라기에 알맞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좋은 꽃이라도 그 환경에 맞지 않으면 생육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새로운 장소에 식물을 식재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식물을 선택해야한다. 햇빛이 따가운 테라스, 물이 침수되는 부분, 북향의 벽과 같은 그늘진 환경에서 무엇이 좋은지(최소한 견딜 수 있는)를 생각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패랭이처럼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들을 나무아래 그늘진 곳에 심는 것은 맞지 않으며 반면에 호스타, 은방울, 양치식물(청나래고사리), 동굴레 등은 나무 그늘을 좋아한다.



나무아래 음지에서 잘 적응하는 호스타, 대사초, 바위취 등이 잘 어우러져 자리고 있다.

5. 칼라를 현명하게 이용하라.

색감은 정원의 분위기나 보이는 공간의 깊이를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꽃과 나무, 조경자재 등의 칼라를 현명하게 사용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정원의 끝을 더 깊이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혹은 정원 가장자리에 더 공간적인 느낌이 들게 하기 위해서는 연한 노란색이나 옅은 파랑색을 사용한다. 황갈색이나 빨간색 같은 따뜻한 느낌의 색상들은 활기를 띄게 해주기 때문에 테라스 주위를 꾸미기에 아주 좋다. 암녹색, 짙은 회색, 검은색 같은 색은 많이 쓰지 않도록 한다. 이와 같은 색들은 정원의 크기를 축소시키고 우울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에메랄드그린, 황금실화백 등을 이용해서 포인트를 주고 있다.

4. 정원의 포인트를 추가하라.

정원 곳곳에 포인트를 준다면 정원을 꼭 차 보이게 하고 단을 이루는 흥미를 가지게 한다. 큰 포인트식물은 모든 계절에 좋은 작은 나무들(붓대야, 무늬병꽃, 무늬국수나무 등) 혹은 원주형의 몇몇 상록수들(스카이로켓, 에메랄드골드, 에메랄드그린 등)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초화류 중에서는 디기탈리스, 역새류, 니포피아 등이 정원의 포인트식물로 좋은 소재이다. 이 식물들은 앞쪽이나 중간에 배치해 둘 수 있다. 그리고 뒤에 무슨 식물이 있는지 볼 수 있게끔 배치를 해야 한다.



봉부터 가을까지 노란색이 돋보이는 칼라정원

6. 매 계절마다 아름다움을 선보여라.

정원이 제일 꽃이 많은 여름 시즌 3개월 동안만 화려한 색깔을 지니고 나머지 9개월 동안은 그다지 볼 것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만 계획을 잘 세워두면 1년 내 내 눈을 즐겁게 해줄 수 있다. 특별히 긴 기간 동안 피는 품종(코레우리, 가우라, 후룩스, 상록잔디패랭이 등) 품종을 사도록 한다. 그리고 가장자리에는 계절별로 바꾸어 줄 수 있는 한해살이 식물을 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나무 아래에는 튤립, 무스카리, 수선화 등 추식구근을 가을에 심으면 이른 봄 꽃이 없는 시기에 화려한 꽃들을 맞이할 수 있다. 질감이 좋은 상록성의 관목이나 가지의 표피가 아름다운 말채나무 품종들을 잘 혼합하면 아름다운 겨울정원도 가능하다.



계절별로 다양한 꽃들과 화색을 보여주는 혼합식재 정원

8. 정원의 높이와 구조를 구상하라.

깔끔하게 정리된 수목, 상록수 관목, 꽃이 있는 덩굴아치 등과 같이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정원의 가장자리는 단순히 다년생 식물들로 다 덮인 가장자리 보다는 훨씬 눈을 즐겁게 해줄 수 있다. 명확하게 정원의 선을 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잔디 가장 자리를 깔끔하게 다듬고 정원 가장자리나 길에 나무나 상자로 울타리를 만든다. 정원의 모양에 관해 예를 들자면, 정사각형 테라스 같은 경우는 편안하고 곡선이 있는 길은 공간을 길어보이게 해준다.



울타리를 장식하고 있는 클레마티스 헨리품종

7.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감각적인 요소들을 사용하라.

황홀한 향기, 빛과 촉감으로 가득한 정원은 정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털수염풀(*Stipa tenuissima*)과 같이 만지는 촉감이 있는 식물과 백합과 같이 강한 향과 밝은 색의 꽃을 피는 식물을 섞어서 혼성식재하면 좋다. 그리고 향이 나는 등나무 같은 울타리 식물이나 장미로 덮인 아치형 구조물을 정원의 적당한 곳에 세워본다. 실은쑥, 향나무, 그라스류 등은 보기에도 좋고 감촉도 좋다. 밀집한 대나무들은 바람이 불어올 때 평화로운 소리가 들리는 것만이 아니라 주위의 소음도 줄여준다.

물이 살짝 튀면서 만들어 내는 공간적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계류와 인공폭포를 만드는 것도 좋다. 그리고 여름밤의 좋은 인공조명은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것이다.



혼합식재 정원에서 무늬새는 전체적인 느낌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클로버 초콜릿 행복
행복과 행운을 동시에 드립니다

하늘국화 금방식
금나비와 함께 금방식을 드립니다

2016년, 정원을 위해 계획하고 계신가요?
우리꽃에 문의 하십시오.

이젠 우리 정원에 맞는 신상품입니다.

"장기개화용" 봄부터 가을까지
쭉~~핍니다!! 비료만 듬뿍!!

코레우리 우리드림시리즈, 하디시리즈, 골든볼시리즈, 링시리즈, 텀버시리즈
아니랄~수, 할~수, 이럴수 있는거야?
5월에서 11월까지 숨도 쉬지 않고 피워대는 꽃꾸름 꽃향기



에키네시아 레인보우
천상의 화색 5월부터 11월까지
어찌 그리 고울까요?



상록잔디패랭이
4월에서 11월까지 끝내준다.
순천정원박람회 바로 그 주인공



하늘국화
블루, 하양, 큰꽃, 애기별하늘국화
꽃방석, 말해 뭐해! 봐야 알지!!
4월에서 11월까지 꽃방석인지
확인하면 바로



가우라
베이비레드, 베이비핑크, 베이비골드트리
나비가 날았을까? 참자리가 있었을까?
5월에서 11월을 날고, 앉아 꽃피우는

산타벨라가 들려주는 화초이야기

봄은

‘프리물러’로부터 온다~

글/사진 성금미 네이버 파워블로거 [저자: 산타벨라처럼 쉽게 화초키우기]
http://blog.naver.com/santabella

봄을 알려주는 가장 대표적인 꽃.

3천원 짜리 화분 하나에도 속눈썹이 바르르 ~~~ 떨어오는 알뜰쟁이 아줌마조차도 해마다 이맘쯤이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지갑을 열게 하는 꽃, '프리물러(Primula)' 랍니다. 프리물러는 넓게 보면 우리 산과 들에 피는 야생화인 앵초와 한 식구인데요,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종류는 주로 원예용으로 개량된 것을 가리킨답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나부끼더라~~~'하는 오래된 노래가 절로 나오게 만드는 분홍이 프리물러 말라코이드스(Primula malacoides). 아... 부서질 듯 여리고 작은 꽃잎~ 프리물러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류랍니다. 여리고도 아슬아슬한 그 향기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요 ~ 이 종류는 꽃의 색깔이 진할수록 향기도 진하답니다.



프리물러가 담긴 화분 한두 개만으로도 집안 분위기가 한결 화사해지고 나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는 봄을 만끽할 수 있어요.



프리물러의 종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모양과 색상도 해를 거듭할수록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모양의 꽃은 프리물러 중에서도 가격이 제일 착하고 색상도 가장 다양한 프리물러 줄리안(Primula Julian) 종류랍니다.

프리물러 줄리안은 예쁜 길모양과는 달리 꽃향기가 거의 없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유독 길은 노란색 꽃에서만은 더 없이 상큼하고 가슴 설레는 향기가 뿜어져 나와요.

프리물러 중 최고의 향기라고 하면 이 녀석이 으뜸이 아닐까 할 정도지요.



프리물러는 아주 밝은 햇빛이 쏟아지면서도 기온은 서늘한 장소가 딱입니다. 그래야 오랜 시간 쉽 없이 꽃을 피우고 단정한 수형을 유지하지요. 컬러가 뚜렷한 꽃이 피는 모든 식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햇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딱 '봄의 향기', 짙은 노란색의 프리물러 ~ 첫 데이트, 첫 입맞춤, 첫 출근, 첫 눈의 추억 같은~ 이 녀석이 놓인 공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랍니다.

늘씬한 꽃대가 쭉 올라온 고고한 자태에다 예쁜 색상의 꽃잎이 크고 아름다워 시중에 나와있는 프리물러 종류 중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녀석, 프리물러 오브코니카(Primula obconica).



멀리서도 눈에 확 띄는 미모에 금세 마음을 빼앗기지만 녀석의 몸속에 숨어있는 독성이 문 제랍니다.

화훼업을 하시는 분이나 원예가들 가운데 프리물러 오브코니카(일부 앵초 포함)를 다루는 분들은 종종 알려지성 피부염에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피부가 약한 분들은 녀석을 다룰 때 꼭 '장갑'을 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심하게 접촉한 경우가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으니 안심하세요 돼요.



공부방이나 회사 사무실의 밝은 창가에 요런 색상의 프리물러 화분을 하나쯤 놓아둔다면 실내 분위기가 생기 있어질 뿐만 아니라 눈이 시원해지고 기분이 가벼워지는 게 절로 미소가 머물면서 업무능력이 쑥 ~~~ 올라가겠지요? ^^ 햇빛이 모자란 집이라도 얼마간 화사한 봄의 느낌을 즐기고 싶다면, 어둡고 황량한 공간에 한 철이나마 생기를 불어넣고 싶다면, 과하지 않은 화사함으로 귀여움과 사랑스러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프리물러를 키워보세요 ~



마라코이드스 꽃씨

‘프리물러’ 잘키우는 방법

1. 올바른 햇빛 쏘여주기 : 직사광선이나 그에 가까운 밝은 햇빛
2. 올바른 물주기 : 화분의 겉흙이 말랐을 때 한 번에 흙벽 꽃잎에 물이 묻지 않도록 저면관수
3. 고를 때 주의 사항 : 밝은 곳에서 키울 경우 - 꽃이 피어 있는 것보다 꽃봉오리가 많은 것
어두운 곳에서 키울 경우 - 꽃이 최대한 많이 피어 있는 것
4. 관리 : 시든 꽃줄기와 노랗게 변한 잎파리는 그때그때 잘라주세요.
5. 번식 : 씨뿌리기 또는 포기나누기



씨앗이 발아되어 자라고 있는 마라코이드스 어린 묘종



겨울에 더 아름다운

에리카 속(Genus Erica)

유럽, 온대성의 아프리카(주로 남아프리카 림포포 강의 남쪽),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습한 황야에서부터 건조한 황야에 이르는 다양한 서식지에서 포복성의 상록관목으로 700종 이상의 속이다. 잎이 두르리 말린 형태로 몇몇 종은 2cm(1/2in)보다 큰 것도 있지만, 보통 3-10mm(1/8-1/2in)정도 길이로 호생이다. 꽃은 주로 종모양에서 항아리 모양으로 0.2-4cm(1/16-1 1/2in)정도로 길며, 끝부분에 총상꽃차례(때때로 잎이 무성하고 종종 스파이크 모양이다.) 산형꽃차례 또는 원추꽃차례 같은 형태의 머리로 2-5개의 꽃이 발달한다. 꽃은 갈루나(Calluna)와 돌기한 화관과 보통 초록 꽃받침에 의해 구분된다. 내한성이 있는 종은 땅을 덮으면서 넓게 자라는데, 같은 종끼리 자라거나, 다른 철쭉과의 식물과 함께, 또는 작은 구과 식물과 함께 서식하면서 한 해에 걸쳐 다양한 색을 만든다. 교목같은 종은 좋은 예가 된다. 우리나라의 추운 지역에서는 겨울 온실에서 자라게 하거나 보온이 필요하다. 남쪽 따뜻한 기후에서는 갈루나 또는 다른 관목과 함께 구성해도 좋다. 내한성은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습도와 건조에 따라서도 달라 조심스럽게 적응 시험 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재배는 햇빛이 강한 야외에서 배수가 잘 되는 산성토양에서 자란다. 대부분 겨울이나 봄에 꽃이 피는 유럽종이고, 여름에 꽃이 피는 *E.manipuliflora*, *E.terminalis*, *E.vagans*, *E. x williamsii*는 알칼리성 토양에 잘 견딘다. 생장기에는 물을 많이 주고, 4주마다 반 정도의 농도로 균형 맞춘 액체비료를 준다. 꽃이 피어있지 않을 때는 물을 적당히 준다.

증식은 적당히 성숙한 것을 여름 중순쯤이나 말쯤에 꺾꽂이 하여 뿌리내리게 하고 봄에는 묻어 떼기를 한다.

병충해와 질병 진균류에 의해 감염되기 쉽다. 주로 역병은 뿌리를 썩게 하고, 리족토니아는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활동한다.



흔하게 자라 잡초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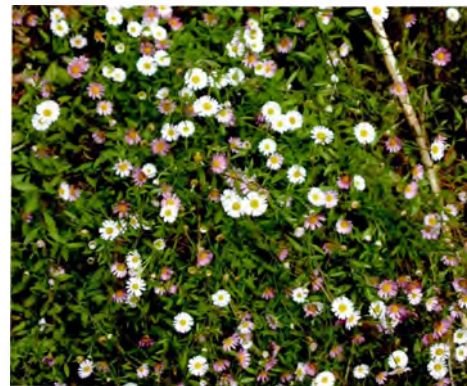
망초 속(Genus Erigeron)

약 200종의 일년생, 이년생, 다년생의 종이 속하는 속. 마른 초지나 산이 많은 지역에서 발견된다. 매우 넓은 범위에 분포하며 특히 북아메리카에서 많이 나타난다. 키가 작은 고산지대 종에서부터 키가 크고 우거지며 덩불을 이루는 종까지 다양하다. 모든 종이 단순하고 드물게 열편, 또는 전열인 잎을 가지고 있다. 주로 기저부의 잎은 창이나 수저 모양의 타원형이다. 줄기의 잎은 보통 더 짧고 더 가늘다. 개암초는 꽃 때문에 키워지는데 꽃은 데이지와 비슷하며, 한 겹에서 반두껍이다. 중앙부는 주로 노랑고, 두상화가 흰색, 분홍색, 청색, 보라색, 때때로 노란색 또는 오렌지색이다. 주로 여름에 오랜 기간 동안 단독으로 또는 산방꽃차례를 이루어 개화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발을 망친다 하여 망초라는 식물명을 가진 귀화종이다. 초본의 교잡종은 6-15cm 길이의 잎을 가지며, 두상화의 직경은 대부분 4-6cm이다. 혼합된 화단이나 초본의 화단, 특히 연안의 정원이나 락가든에 키운다.

내한성이 매우 강해 겨울을 상록으로 난다. 비옥하고, 배수가 잘 되어 여름에도 완전히 마르지 않는 토양에서 자란다. 빛은 충분히 쬐어야 하지만 한낮에는 약간 그늘이 있어야 한다. 작은 고산지대 종은 예민한 배수를 필요로 하고 겨울에 물이 차는 곳에서는 고사한다. 대부분의 키 큰 종과 교잡종은 지주목을 박아줄 필요가 있다. 시든 꽃을 떼어내야 꽃이 더 잘 핀다. 2년에서 3년마다 늦은 봄에 분주를 하고 (E. 'Dimity'는 매년), 목질의 묶은 줄기는 버린다.

증식방법으로는 봄이나 늦봄에 냉상에 있는 용기에 종자를 뿌린다. 봄에 분주하거나 기저부에서 자른 가지를 심는다.

해충 및 질병으로는 건조한 상황에서 흰가루병은 몇몇 교잡종에 감염할 수 있다. *E. aurantiacus*는 민달팽이에 취약하다.





형태가 다양한 다육식물

에린지움 속(Genus Eryngium)

낙엽성 또는 상록성의 다년생 혹은 이년생, 일년생의 털 없는 230종이 속한 속. 그들 대부분은 유럽, 북아프리카, 터키, 중앙아시아, 중국과 한국의 건조하고 암석이 많은 근해의 지역에서 자란다. 대부분 곧은 뿌리를 가지며, 달걀형에서부터 하트모양까지 잎을 가지며 때로는 잎이 두개로 나뉘어지기도 한다. 푸른색이나 흰색의 꽃으로 이루어진 풍성한 정단부는 눈에 잘 띄는 포엽을 갖는다. 그들은 때때로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또는 따뜻한 기후의 북중남미의 축축한 지역이나 늪지대 초원에 있다. 보통 섬유질의 뿌리를 갖고 칼 모양의 상록의 잎을 가지며, 덜 화려하며 녹색을 띄는 흰 꽃(가끔은 자주빛의 갈색)을 갖고, 작은 포엽을 갖는다. 대부분의 Eryngium은 기초적인 로제트형태를 가지며, 은색이나 흰색의 염색을 가진 가시가 달린 잎이 있다. 갈라진 줄기 끝에 화경이 없는 꽃이 산형꽃차례로 피며 이는 엉겅퀴와 같은 반구형 혹은 원통형의 형태를 띤다.

Eryngium은 이색적으로 눈에 띄는 식물이다. 화단에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볼거리를 제공한다. 꽃이 활짝 피기 전에 줄기를 잘라 말려서 꽃다발 용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내한성은 완전 내한성을 가지는 것부터 서리 내한성이 있는 것까지 있고 서리 내한성을 가진 미국 종들은 -10°C(14°F)이하의 온도까지 견딘다. 하지만 -7°C(19°F) 이하가 되면 잎은 손상을 입는다.

재배방법으로 Eryngiums는 다양한 재배 조건을 가지고 있다. 참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건조하고 물이 잘 빠지는 토양에, 척박지부터 적당한 양분이 있는 토양에서까지 자란다. 풍부한 햇빛을 받으며 겨울 습기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2. 습기가 있고 물이 잘 빠지며 비옥한 토양에서 풍부한 햇빛을 받아야 한다.

증식을 위해서는 열매가 익자마자 차가운 프레임 안에 있는 용기에 씨를 뿌린다. 비록 회복이 느리지만, 봄에 분주한다. 다년생의 자른 뿌리를 늦은 겨울에 근심하여 심는다. 병충해로는 뿌리가 썩기 쉬우며, 민달팽이와 달팽이에 의해 피해와 흰가루병이 생기기 쉽다.



심자화과의 새로운 기대종

쑥부지깽이 속(Genus Erysimum)

이제는 *Cheiranthus*(꽃무 속)이 포함되며 약 80 종의 일년생, 이년생, 그리고 주로 상록성의 다년생이 속하는 속이다. 흔히 목질이 기본으로 주로 배수가 잘되는 석회질의 토양에서 발견된다. 유럽에서부터 남아프리카까지,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메리카에 분포한다. 노란 꽃 때문에 재배된다. 꽃은 폭이 2.5cm에, 개개의 꽃은 십자로 배열된 4개의 꽃잎을 가지고 있고 백백하게 모여 개화한다. 꽃차례는 보통 산방꽃차례와 비슷한 늘어난 총상꽃차례이다. 대부분의 쑥부지깽이 속 식물은 거꾸로 된 창 모양에 거치가 있고 부드러운 털이 있는 잎을 만들고 그 길이는 3-12cm이다. 많은 종들이 깎기나 양지바른 정원, 높임 화단에 이상적이다. 이년생은 봄 초화로 울타리용으로 인기 높다.

내한성이 뛰어나며 결빙에 내성이 있다.

영양이 빈약한 토양에서 햇빛은 충분히 비추어지도록 하고 비료는 적게 주거나 알맞게 주고, 배수가 잘 되며, 중성, 이상적으로는 알칼리 토양에서 키운다. 다년생은 줄기가 가늘고 길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화 후에 가볍게 다듬어준다.

증식 봄에 냉상에 있는 용기에 다년생의 종자를 뿌린다. 다년생 관목으로부터 얻은 마디 또는 튀어나온 부드러운 가지를 붙이나 여름에 심목한다. 이년생은 늦봄에서 이른 여름 사이에 모판에 종자를 뿌리고 묘상에서 키운 뒤, 가을에 개화 할 장소에 옮겨 심는다.

병충해로는 뿌리혹 병, 흰가루병, 모자이크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균류에 의한 질병과 박테리아에 의한 질병에 취약하다. 민달팽이, 달팽이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Special Issue

벌, 나비 그리고 새를 부르는 정원용 식물 30선

꽃들에게는 반가운 친구들이 있다. 벌, 나비, 그리고 새. 이 들은 꽃속에 숨겨진 꿀을 찾아 먼길을 나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꽃들의 중매자이기도 하다. 각자마다 좋아하는 꽃을 찾아 주변을 서성인다.

이번호에서는 종자로 키우는 것이 가능하면서 벌, 나비, 새들이 좋아하는 정원식물을 소개하고자 한다(정원식물 사진위에 좋아하는 친구들을 그림으로 표시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 사진 편집실

Gardenin TIP

소개하는 정원식물중에서 선택하여 혼합해서 작은 정원이나 큰화분에 파종하는 것도 좋습니다.



라일락 베베나

파종시기: 3~6월 / 개화기: 6~10월 / 초장: 100~120cm



1. 꽃아마

파종시기: 3~5월 개화기: 5~9월 초장: 45~50cm



2. 캘리포니아양귀비

파종시기: 9~4월 개화기: 5~6월 초장: 40~50cm



3. 배초향

파종시기: 3~9월 개화기: 7~9월 초장: 60~70cm



4. 큰꽃장대나물

파종시기: 3~9월 개화기: 4~5월 초장: 10~15cm



5. 클라키아

파종시기: 3~6월 개화기: 6~10월 초장: 30~40cm



6. 애기별구름국화
파종시기: 3~6월 개화기: 5~9월 초장: 20~25cm



8. 천인국
파종시기: 3~5월 개화기: 7~9월 초장: 50~60cm



9. 에키나
파종시기: 3~9월 개화기: 6~8월 초장: 70~80cm



7. 루피너스
파종시기: 8~3월 개화기: 5~7월 초장: 70~90cm



10. 잉글랜드양귀비
파종시기: 9~4월 개화기: 5~6월 초장: 60~80cm



11. 물망초
파종시기: 9~5월 개화기: 5~7월 초장: 25~30cm



12. 리아트리스
파종시기: 3~9월 개화기: 7~8월 초장: 70~80cm



13. 펜스테몬 록키
파종시기: 3~9월 개화기: 5~6월 초장: 50~60cm



14. 가우라
파종시기: 3~9월 개화기: 6~10월 초장: 70~80cm



15. 솔리다고
파종시기: 3~9월 개화기: 7~8월 초장: 60~70cm



16. 델피니움
파종시기: 3~9월 개화기: 5~7월 초장: 150~170cm



17. 오렌지코스모스
파종시기: 3~7월 개화기: 6~10월 초장: 70~80cm



18. 춘차국
파종시기: 3~7월 개화기: 6~10월 초장: 50~60cm



19. 사루비아 스칼렛
파종시기: 3~6월 개화기: 6~10월 초장: 50~60cm



20. 프렌치메리골드
파종시기: 3~6월 개화기: 6~10월 초장: 20~30cm



21. 파꽃
파종시기: 3~6월 개화기: 6~10월 초장: 50~60cm



22. 벨가못
파종시기: 3~9월 개화기: 7~8월 초장: 70~80cm



23. 해바라기
파종시기: 3~6월 개화기: 8~10월 초장: 150~200cm



24. 루드베기아
파종시기: 3~9월 개화기: 7~8월 초장: 50~60cm



25. 캐나다연매발톱
파종시기: 3~9월 개화기: 5월 초장: 25~30cm



26. 금계국

파종시기: 3~9월 개화기: 5~6월 초장: 50~60cm



27. 이베리스

파종시기: 9~5월 개화기: 5~9월 초장: 25~30cm



28. 꽃무

파종시기: 9~4월 개화기: 5~6월 초장: 25~30cm



29. 아스타

파종시기: 3~9월 개화기: 7~10월 초장: 60~80cm



30. 수레국화

파종시기: 9~6월 개화기: 5~10월 초장: 70~80cm



“도심광장, 교통섬, 건물앞 공터, 옥상”
행사 디스플레이, 실내정원용
어디에서나 쉽게 설치 가능!!



규격		*부가세 별도
구분	규격	단가
오아시스	1,000×1,000×300	400,000
	1,000×1,000×400	500,000
	1,000×1,000×600	600,000

* 식물, 토양 별도 구매
* 10개 이상 구매 시 배송비 무료

출원번호 10-2014-0137480

오아시스(박스정원)

암석가든형

돌과 식물들을 조화롭게 배치한 암석가든



혼합가든형

다양한 식물들을 이용하여 조성한 미니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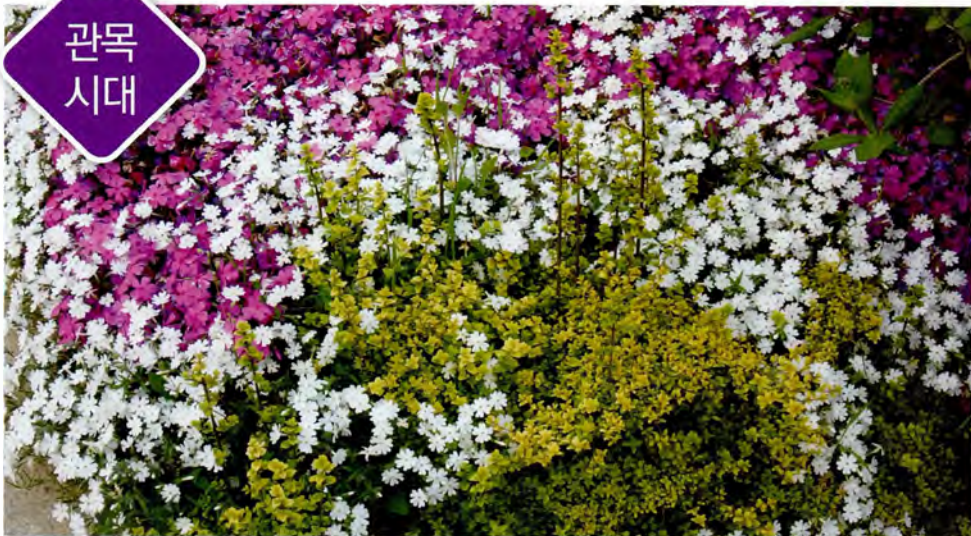
텃밭가든형

채소와 꽃들을 이용하여 연출한 도시텃밭형



우리꽃 영농조합법인

구입문의 T. 031-634-7990

관목
시대

겨울상록의 관목

로니세라(Lonicera) & 코트너아스터(Cotoneaster)

이번호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도 쓰임새가 좋으면서 겨울에도 상록성으로 잎을 유지하고 있어 겨울정원에도 좋은 관목, 로니세라와 코트너아스터 2품종을 연속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글 사진 편집실

소관목의 새로운 소재

로니세라

조경현장에서는 교목, 관목, 숙근지피식물 등이 현장 여건에 맞게 적용되어지는데 요즘들어 키가 작고 아담한 관목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철쭉이나 회양목 등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식물을 제외하고는 그 종류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요 몇년사이 본격적으로 소개되어졌던 삼색조팝, 황금조팝이 새로운 소관목류로 큰 인기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좋은 소재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소개하는 로니세라는 또 하나의 신소재 관목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무늬로니세라



“암석가든, 포인트식물로 독립적으로 쓰여도 좋고 군식하여도 좋다.”

로니세라는 외국에서 생울타리나 토피어리로 많이 사용되는 품종이다. 로니세라는 원래 인동의 학명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에 소개할 무늬종 로니세라(Lonicera 'Variegata')는 인동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식물이다. 인동이 덩굴식물이고 로니세라는 잎과 키가 모두 작은 관목인데 무늬로니세라는 땅으로 가지들이 향하는 좀 독특한 형태로 자라는 식물이다. 잎이 조밀하고 작아 아기자기한 느낌을 주며 줄기가 자라는 형태가 일자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구불구불한 형태로 자라기 때문에 이색적인 느낌을 동시에 주어서 암석가든에 돌과 잘 어울리고 포인트 식물로 독립적으로 쓰여도 좋다. 그리고 무늬가 밝은 색을 띄고 있어서 경계를 주기 위한 라인식물로도 좋으며 또한 현장에서 석축이나 조경석을 쌓는 곳에 회양목, 철쭉만 식재하지 말고 무늬로니세라를 적절히 심어주면 매우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아담하고 빈틈없이 자라기 때문에 가지가 많이 발달하여 겨울에도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로 사용하거나 무늬종과 같이 적절하게 배치하면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새로운 무늬종 소관목으로 적극 추천하고자 한다.



겨울에도 잎은 상록으로 유지된다.

“무늬가 밝은 색을 띄고 있어 라인식물로도 좋으며 석축이나 조경석을 쌓는 곳에 적절히 심어주면 큰 효과를...”

무늬로니세라는 보통 양지에서 잘 자라지만 약간의 반음지도 문제없이 잘 자란다. 배수가 잘되는 토양을 좋아하며 토양이 아주 비옥하지 않아도 잘 자란다. 다만 장마기에 진딧물이 생길 수 있어 그 점만 유의한다면 생육에는 문제가 없는 우수한 품종이다. 무늬종외에도 잎이 황금색을 띄는 로니세라 '황금' (Lonicera nitida 'Golden Bargin')이라는 품종이 있는데 단독으



석축배치용으로 좋은 소재(로니세라황금)

상록의 관목이 물려옵니다

Juniperus (향나무류)

- 잎의 질감이 뛰어납니다.
- 상록으로 겨울가든에 최적의 소재입니다.
- 암석가든, 도심파녹지, 아파트 등 어디에 적용해도 좋은 전천후 관목입니다.



골드스타형



골드카센형



블루카센형



블루에로우형

구입문의

우리꽃영농조합법인

031-634-7990

상록성의 조밀한 소재

코트너아스터

코트너아스터(*Cotoneaster*)는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북아프리카에 80여종이 분포하는 상록, 반상록의 소형 관목식물이다. 산림지대에서부터 바위가 많은 곳까지 다양한 생육특성을 가지며 키는 3~4m에서 10cm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장미과로 우리나라에는 홍자단, 백자단이라고 하여 관상용, 분재용으로 들어와 있고 섬개야광나무, 둥근잎개야광나무가 자생한다. 형태적으로도 위로 자라는 종과 옆으로 뻗어나가는 종으로 나누어지는데 현장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하면 된다. 조경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유럽에서는 주로 수목의 하부에 식재하거나 혹은 바위나 벽을 타고 내려오게 배치를 하며 울타리를 타고 올라가게해 생물다리를 연출하기도 한다.

“겨울에도 잎과 열매가 달려있어서 겨울정원의 대표적인 관목”

점시모양 또는 옆으로 넓직한 얇은 점모양의 꽃이 봄에서 여름까지 흰색 또는 분홍색으로 피며 꽃이 지고나면 가을에 붉은색의 지름이 약 8-9mm 정도 되는 구형 혹은 계란형의 아름다운 열매가 줄기 전체에 달린다. 겨울에도 열매가 달려있어서 붉은 열매 표면에 서리가 내려 살짝 살얼음이 언 상태는 겨울정원의 대표적인 장면이 될만하다.

배수가 잘되는 토양을 좋아 하나 대부분 건조한 조건에도 잘 견디고 염분에도 내성이 있는 편이다. 반음지, 양지 모두 잘 자라며 열매를 많이 보기 위해서는 양지가 더 좋다. 정갈하게 자라는 편이라 특별히 전지를 해줄 필요가 없지만 생물다리가 밀집력있게 보이도록 하려면 많이 전지를해 주어도 무리가 없다.

“수목하부, 돌메지용, 암석가든 등에 좋다.”

단, 큰포기는 이식력이 좋지 않아 어릴때 옮겨 주는것이 좋으며 포트묘일 경우는 큰 문제가 없다. 조경현장에서도 수목하부 하부 식재, 돌메지용, 석축위 식재, 암석가든용 소재로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는 상록성 관목이다.



겨울상록의 모습



트레이 상록묘

대면적의 아름다운 연출을 위한 최고의 소재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명성

우리법면 혼합종 시리즈

특 성

1. 야생화 26종이 안정된 비율로 혼합되어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매년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다.
2. 일년생과 다년생이 적절히 혼합되어 첫해에는 일년생 위주로 꽃을 피우면서 첫해부터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한다.
3. 안정된 비율로 혼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해가 지날수록 더욱 아름다운 경관과 아울러 안정된 식생을 유지한다.
4. 연중 시공이 가능하며 구미에 맞게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법면 3호, 4호)



금호아파트



리데나



울산 태화강



에코랜드



대천대리



우리꽃 영농조합법인

전화. 031.634.7990



화단의 봄 알림이 - 봄맞이

2월만 되도 봄이 기다려진다.

계절이 빠른 남녘에서는 약 올리기라도 하듯 꽃 소식을 전해온다. 조급한 마음에 시끌라쎈 같은 화초를 사 들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봄이 화분째 굴러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꽃 필 것을 기대하고 미리 자기가 좋아하는 꽃의 씨앗을 뿌려두는 것이 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식물명 중에 봄맞이 또는 봄맞이꽃이라 부르는 꽃이 있다. 이름처럼 일찍 피는 꽃이라고 하긴 어려우나 꽃을 준비하는 시기가 이른 것은 분명하다. 잎을 방석모양(로제트)으로 펼쳐서 땅바닥에 붙은 채 겨울을 난 후 봄에 꽃을 피우는 두해살이풀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봄을 맞이한다기보다 지난해 퇴운 싹으로 가을부터 겨울 지나 계속 해서 봄을 기다리는 것이다. 처음에는 꽃이 얼마 피지 않는다. 하지만 점점 만개하면서 여러 개의 흰색 꽃이 우산을 펼친 것처럼 활짝 피어난다. 그래서 봄맞이의 씨를 한 번만 화단에 뿌려두면 매해 꽃이 피어 봄을 알려준다. 군락으로 번지면 대표적인 지피식물인 지면패랭이처럼 봄 화단을 온통 새하얗게 뒤덮는다.

봄맞이(앵초과) *Androsace umbellata*

개화 : 3~5월

높이 : 10~20cm

분포 : 전국의 밭과 들의 가장자리에서 자라는 두해살이풀이다.

▶ 잎 : 뿌리에서 10~30개가 모여 나와 방석처럼 퍼져 자란다. 반원형 또는 둥근 난형이고 밑부분은 심장 모양이며 가장자리에 삼각 모양의 톱니가 있다. 길이와 폭은 각각 0.4~1.5cm이고 잎자루는 0.7~2cm이다.

▶ 꽃 : 4~5월에 잎 사이에서 나온 꽃줄기 끝에 달리는 산형꽃차례에 4~10개의 흰색 꽃이 모여 핀다. 꽃자루는 1~4cm이다. 포엽은 난형 또는 피침형이다. 꽃받침은 5갈래로 깊게 갈라지고 갈래조각은 난형이다. 화관도 5갈래로 깊게 갈라지고 통부는 짧으며 안쪽에 노란색의 유인색소가 있다. 화통 속에 5개의 수술과 1개의 암술이 있다.

▶ 열매 : 구형의 삭과이고 지름은 0.4~0.5cm이며 꽃받침조각이 붙어 있고 아래를 향해 달린다. 익으면 끝이 5갈래로 갈라진다.



봄맞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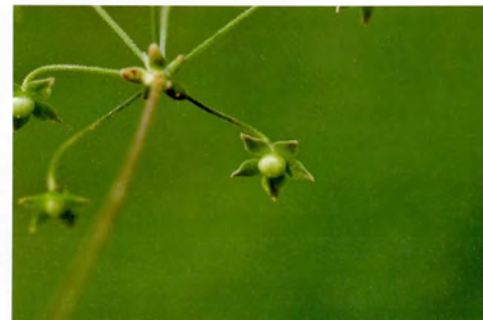
애기봄맞이

봄맞이의 계절은 오직 봄뿐이다. 꽃이 지고 열매가 달리면 무게 때문에 줄기가 옆으로 눕는다. 7월경이면 열매가 벌어져 씨앗을 쏟아낸 후 완전히 말라 없어진다. 대신 새로운 싹이 돌아 다음해 봄을 기다린다. 잎이 달리는 모양이 겹겹이 쌓인 동전처럼 보여서인지

동전초(銅錢草)라고도 부른다. 비록 동전이긴 하지만 돈을 벌고 싶은 소망을 담아 씨를 뿌려두면 혹시 좋은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봄맞이의 유사종들은 대개 잎의 모양이 식별 포인트이므로 잎의 모양을 익혀두면 좋다.



봄맞이의 꽃



봄맞이의 열매



유사종 알아보기

붓꽃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식물 중에서 남한에서 자생하는 것은 애기붓꽃이, 금강붓꽃이, 갯붓꽃이 있다.

애기붓꽃이(*A. filiformis*)는 이름처럼 붓꽃이에 비해 꽃과 열매가 애기처럼 작다. 잎이 길쭉한 타원형이고 가장자리의 톱니가 둔한 점이 달라서 꽃이 없어도 쉽게 구별된다. 자라는 곳도 다르다. 애기붓꽃이는 습기 있는 곳을 좋아해서 물기가 많은 논밭의 가장자리에서 자란다. 물이 졸졸 흐르는 개울가에서 흔히 발견된다.

금강붓꽃이(*A. cortusaefolia*)는 설악산과 금강산의 바위지대에서 자라며 6월이나 돼야 꽃이 핀다. 비교적 추운 곳의 고지대에서 자

라는 꽃이라 따뜻하고 낮은 지대로의 이식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꽃과 잎이 워낙 예쁘고 여러해살이풀이므로 관상용으로 개발할 가치가 매우 크다. 오로지 한국 땅에서만 자라는 한국특산식물이라는 점도 매력적인 야생화다.

갯붓꽃이(*Glauca maritima* var. *obtusifolia*)는 붓꽃이와는 속이 다른 식물이라 외형도 많이 다른 편이다. 또한 염생식물처럼 바닷가 근처에서 무리지어 자라므로 이식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 또한 개발만 된다면 지피식물로 매우 좋다. 북방계식물로 알려졌으나 근자에 포항과 강릉의 바닷가에서 발견되었다. 흰색 꽃으로 피는 것도 있다.

심기와 관리하기

햇빛이 잘 드는 곳을 좋아한다.

사질 양토에서 잘 자란다.

물은 배수가 잘 되도록 충분히 공급한다.

씩이 나면 열게 희석한 물거름을 매주 한두 번씩 주거나 덩이거름을 엮어준다.

7월경에 씨앗을 받은 후 즉시 파종하는 것이 좋다.



글 사진 이동혁
협이심촌의 물꽃나무 일기
<http://blog.naver.com/freebowl/>
한국의 나무 바로알기, 한국의 야생화 바로알기 저자

수직정원, 벽면녹화, 인공구조물 녹화

최고의 기술은 "세 번의 겨울"을 나봐야 안다.

수직정원의 역사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그러나 진정한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은 수직정원의 대표적 선두주자는 단연 수직정원의 대명사인 벽화수이다. 수직정원 벽화수는 일반적인 벽면녹화용 제품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제품은 주로 흙을 담은 그릇과 같은 용기를 이용하여 벽면에 부착하게 된다. 그것은 식물이 자라는 밥그릇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밥그릇이 크면 야 좋지만 벽면에 메달 수 있는 용기는 한정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런 제품은 혹독한 겨울을 날 수가 없다. 물과 양분의 유실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정한 수직정원의 기술력은 겨울을 세 번은 나봐야 인정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수직정원 벽화수는 따로 그릇이 없다. 토양만이 있을 뿐이다. 원하는 벽면 전체가 썩지 않고 흘러내리지 않는 자연상태의 토양과 같은 것이 식물의 뿌리를 한정하지 않고 또 수분의 고급도 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심장인 서울의 하늘아래 실내가 아닌 건물 외부에 시공되어 3년을 넘긴 기술력은 오직 벽화수가 유일하다.

더욱이 벽화수는 3년이 아니라 이미 6번의 겨울을 넘기고서도 아주 아름다운 수직의 정원을 연출하고 있다는 데서 역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역시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 특허를 받은 제품의 기술력이 헛되지는 않는 것이다.





테마가 있는 식물이야기 연재-②

클 사진 편집실 그림 박미영

1. 음식식물의 이해와 적용

음지를 밝혀주는 최적의 소재

호스타(옥잠)

호스타는 일반적으로 옥잠이라 불리며 맥문동, 수호초 등과 함께 도심의 수목하부 음지에서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우리에게 친근한 식물이다. 최근에는 나무 밑의 음지 어두운 곳에서도 밝고 환한 느낌을 주는 호스타 무늬종이 사랑을 받고 있다. 호스타 품종들은 7-8월에 가느다란 꽃대에 나팔모양의 보라꽃, 연보라꽃 혹은 흰꽃이 피면서 여름내 은은한 향기를 낸다. 호스타는 꽃과 향기도 좋지만 관상가치면에서 다양한 잎의 형태와 색을 지니고 있기에 더욱더 매력적인 식물이다.

열은 녹색에서부터 짙은 녹색, 노랑에 가까운 녹색, 회색, 블루 외에 흰색의 가장자리에 짙은 녹색과 대조를 이루는 잎들이 있는가 하면 짙은 녹색의 가장자리에 줄무늬가 있는 노란 잎, 블루에 가까운 녹색의 잎들이 약간 주름이있는 것, 흰색과 녹색이 선명하게 대비를 이루는 잎 등 여러 종류의 질감과 색을 가진 다양한 잎이 있



다. 또한 잎의 크기가 10-15cm 정도 되는 작은 것부터 30cm가 넘는 대형까지 있다. 다양한 잎의 색, 크기와 형태들이 비교적 단조로울 수 있는 수목하부 식재에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호스타류는 비옥한 토양을 좋아하므로 연 1-2회 시비를 해주어야 매년 좋은 잎과 꽃을 볼 수 있고 번식도 잘 된다. 생육이 강건하여 빠르게 활착할 뿐 아니라 병충해에도 강하여 관리상의 어려움은 많지 않다. 만약 잎이 타거나 병해충으로 인하여 잎이 지저분해지면 과감히 지상부를 잘라주면 바로 깨끗한 새 잎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정원용 식물인 호스타 품종들은 다양한 무늬와 형태(크기)의 잎을 가지고 있으며 관리상의 어려움이 없어 음지지역에 다양한 경관을 연출하는데 중요한 소재이다.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되었고 보아왔던 호스타류가 앞으로 더 다양하고 아름다운 경관들로 우리주변에 쉽게 볼 수 있기를 바란다.



Q&A

Q: 야생화를 종자로 파종하면 언제 꽃이 피나요?

A: 야생화(다년생)는 파종한 이듬해에 꽃이 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늦여름이나 가을에 개화를 하는 일부(총꽃, 산국, 부처꽃) 식물들 중에는 이른 봄에 파종을 하면 개화를 하는 식물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듬해에 개화를 합니다. 일년생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뿌리가 성장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늦어도 발아를 해서 겨울을 날 정도로 성장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듬해에 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 이전에 파종을 하여 발아를 시키는 것이 좋으며 이듬해 이른 봄에 퇴비를 많이 주는 것이 좋습니다.

2. 수중, 수변식물의 이해

아름다운 선의 기품

무늬큰고랭이

큰고랭이(*Scirpus tabernaemontani*)는 생육 적응 폭이 매우 넓은 식물이다. 아열대의 낮은 물속은 물론 저 북방의 한 대까지 폭넓게 생육한다. 보통 물이 20~30cm에 잘 생육하지만 깊은 곳은 60cm까지 자란다. 무늬큰고랭이(*Scirpus tabernaemontani* 'Albescens')는 큰고랭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잎줄기에 세로로 하얀 무늬를 형성하고 특히 이른 봄에서 초여름과 가을에는 그 색이 더욱 아름다운 고급 조경소재이다.

생육특성으로 주로 냇가의 물이 고여 물의 흐름이 느린 곳이나 연못의 낮은 물가에 생육하는데 무리를 이루는 특징이 있다. 평소 줄기를 뽑으며 포기기를 키워나가는데 일반적인 수중식물 특히 부들이나 연, 줄풀 등과 같이 급속도로 번지는 것과는 달리 조밀한 포기를 형성하며 기품 있게 생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키는 1.8~2.5m까지 자라고 줄기의 선이 매우 예쁜 특성을 유지한다. 꽃은 3월에서 7월에 피고 열매는 9~10월이던 익는다. 줄기가 겨울에도 마른상태



로 있어 해동 전까지는 경관을 연출한다.

일반적으로 조경에의 이용은 사진과 같이 연못의 포인트에 입체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좋다. 부들이나 갈풀, 줄풀 등이 입체감은 있으나 쉽게 번식하여 연못을 버리게 하는데 이 무늬큰고랭이는 조밀한 포기로 쉽게 번지지는 않는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넓어짐으로 연못이나 계류의 크기와 넓이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중 차폐막을 설치하거나 이른 봄 새순이 나올 때 적당히 솎아주면 좋은 포인트 식물로 좋다.

또는 독이 무너질 염려가 있는 연못이나 개울의 물 가장자리에 심으면 조밀한 줄기와 긴 뿌리가 토양유실을 방지할 수도 있다.

특히 키가 크고 조밀하여 연못의 미관상 감추고 싶은 부위 주변에 심어도 매우 가치가 있는 식물이다. 특별한 관리는 필요 없으나 적절한 개체수의 유지관리와 겨울동안 좋은 연출이 되어준 잎줄기를 이른 봄 잘라 내거나 물을 놓아 배워버리면 이른 봄 새로운 잎줄기가 더욱 아름답게 자랄 수 있다.



3. 암석가든용 식물

건조 및 습도에도 강한 매트형 기린초

금강애기기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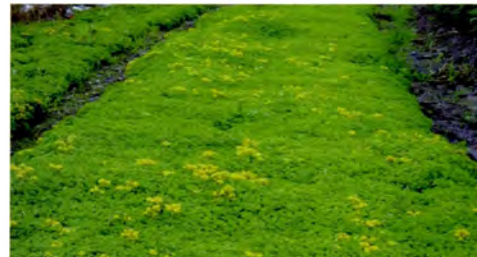
2003년에 첫 출시된 금강애기기린초

(*Sedum middendorffianum* 'Gumgang')는 여러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소재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형태적으로는 일반기린초와 달리 균식하였을 때 매트형을 이루며 녹색카펫을 펼친듯하며 한 포기씩 식재하였을 때는 구형을 이루며 독특한 모양을 선보인다. 꽃은 6~7월에 노란색 별모양의 꽃을 피우며 꽃이 지고난뒤에도 적색의 꼬투리를 물고 있는 모습도 관상가치가 좋다.

일반적으로 세덤류가 복사열과 건조에는 강하지만 습에는 약하여 물 빠짐이 매우 좋은 장소에 식재하여야만 장마를 무사히 넘길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금강애기기린초는 습에도 매



우 강하여 여름 장마철에도 웬만하면 질크러짐이 없이 그 모양을 잘 유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옥상, 암석가든용은 말할 것도 없이 일반 화단에서도 잘 자라 앞쪽식물로 또는 라인식물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생육이 강건하여 적응 폭이 넓은 금강애기기린초는 다른 소재와도 잘 어울리며 옥상, 암석가든의 필수적인 소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4. 화본과 사초과 식물로 대표되는 그라스

햇살담은 초록의바람

털수염풀

털수염풀(*Stipa tenuissima*)은 북미와 남미에 걸쳐 분포하는 화본과의 다년생 식물로 키는 60cm 정도로 자라며 잎과 줄기는 가늘고 부드러운데 5~6월에 꽃이 피면 가히 환상적인 모습을 연출한다. 특히 밝은 연초록의 잎과 이삭이 역광으로 해를 받으며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은 경험하지 않고는 형언하기가 어렵다. 꽃밥의 끝에 털이 있어 하얀 일렁이는 빛을 연출하는 최상의 모양으로 역색의 느낌보다도 훨씬 아름다움으로 다가와 꼭 말로 표현하자면 너무 아름다워 가슴이 울렁거림으로 표현하면 될까?



우리나라에 있는 참나래새, 나래새, 수염풀 등과 비슷한 면은 있지만 꽃이 피었을 때 볼 수 있는 그 부드러운바람, 그리고 엽색의 고급스러움에 있어 단연 돋보이는 식물이다. 여름이 지나면서 머리에 갈색의 엽색을 하듯 희끗희끗 물들어가는 가을의 느낌은 물론 갈색으로 변한 겨울의 풍경까지도 고스란히 멋을 간직한 아주 훌륭한 소재이다. 단독으로 나열을 하거나, 언덕의 큰 군락으로 식재해도 즉 어떻게 심어도 좋은 식물이다.

건습에도 잘 견디며 양지쪽이 좋다. 분화용으로도 매우 좋아 디스플레이용으로도 매우 좋을 뿐만 아니라 행사 축하화분 등으로도 유망한 고급 소재이다. 관리에 있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포기가 커졌을 때 장마철에 포기의 중간이 썩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풍을 좋게 해주고 되도록 물 빠짐을 좋게 해준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이른 봄 시기를 놓치지 말고 지상부를 제거해 주는 것이 좋는데 봄이 될 때까지도 겨울의 마른줄기가 보기 좋아 자르는 시기를 놓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그리고 가는 털로 이루어져 이른 봄 불을 놓아 태우고 싶은 충동이 일어도 불로 태워서는 곤란하다. 아주 조밀한 포기를 형성하여 눈에 보이지 않게 겨울눈이 살아 있어 생육에 절대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이다.

Q&A

Q:야생화 정원에 퇴비를 주고 싶는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는 것이 좋을까요?

A: 퇴비를 주는 것은 식물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연세가 좋다고는 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다년생속 근초(야생화)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퇴비를 주는 시기와 종류는 일반적으로 봄, 여름, 가을에 한 번씩 퇴비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시기는 봄에 싹이 나오기 전에 유기질비료를, 여름 장마기 전후로 복합비료를, 더위가 지나가고 잎이 시들기 전인 9월초쯤에 유기질 비료 혹은 복합비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중 여름에 퇴비를 줄때는 퇴비를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에게 선택적으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5. 향기식물 허브 이야기

보리지 BORAGE



보리지는 오랜 기간 동안 허브 정원에 인기있는 식물로 꽃봉오리는 여름내내 장식용으로 쓰고 잎과 꽃들은 오이향이 필요한 곳에 쓰인다. 약(60-90cm) 높이까지 자라며 작은 별모양의 꽃들은 파란색을 띤다.

4월과 7월 사이에 파종을 하고 햇빛이 잘 들고 공기가 잘드는 비옥한 땅이 적합하다. 곧은 뿌리로 인해서 옮겨 심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15cm 간격으로 좁게 씨를 뿌린다.

보리지의 주된 용도는 관상용이거나 차가운 음료(와인, 여름 음료, 과일주스)의 향을 내는 재료로 쓰인다.

잎, 작은 줄기, 잔가지, 꽃이 주로 쓰인다. 잎과 꽃은 잘게 썰어서 샐러드와 샌드위치의 재료로 쓰일 수 있다. 보리지를 덮고 있는 하얀 털은 피부에 자극적이므로 잎과 줄기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

바질 BASIL



강하고 청향(열대성 정향나무의 꽃을 말린 것, 향신료로 씹)과 비슷한 맛은 많은 이탈리아 요리법에서 필수적인 재료이다. 게다가 스파게티 소스에 쓰이는 토마토와 궁합이 좋아서 스파게티소스, 토마토 소스 모두 바질이 들어간다.

내한성 없는 한해살이 식물이라서 추위에 견디지 못한다. 3월이나 4월에 육묘용 트레이에 심고 6월 초에 배수가 잘되고 빛이 잘 들어오는 곳에 옮겨심는다.

약 30cm 정도를 남겨두고 규칙적으로 끝을 잘라내주게 되면 연한 녹색이면서 향이 좋은 잎을 만들어낸다. 여름동안에는 잎들을 모아서 각빙(ice-cube)방법으로 보관하고 향이 없어질 수 있으니 말려서 보관하면 안된다. 겨울에 바질을 키울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식물을 9월에 화분에 옮겨 심어서 추방 창가에 두는 것이다.

토마토 요리 이외에도, 바질은 풍미가 강한 스프나 샐러드, 고기나 소세지에 쓰이지만 소량을 사용해야 한다.





이명호의 야생화

글 사진 이명호 이명호의 야생화
http://www.skyspace.pe.kr

동강 절벽의 한국특산식물, 동강할미꽃

동강 바위절벽의 야생화

동강의 석회암지대 바위절벽에 붙어 자라는 동강할미꽃은 말 그대로 예술이다. 양지바른 산기슭이나 묘지에서 잘 자라는 일반 할미꽃들에 비해서, 깎아지른 듯한 석회암지대의 바위절벽 틈바구니에서 뿌리를 내리고 형형색색의 고운 색깔로 미모를 자랑하고 있으니, 어찌 감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동강 절벽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꽃

대부분의 할미꽃은 꽃이 아래를 향하여 피는 것에 비해서 동강할미꽃(*Pulsatilla tongkangensis* Y.N.Lee & T.C.Lee)은 처음에 위를 향해 피었다가 꽃자루가 길어지면서 점차 옆을 향하는 것이 뚜렷한 특징이다. 자주색의 꽃이 대부분이지만, 더러는 홍자색, 연분홍색, 보라색, 흰색 등 찬란하리만큼 3~4월의 동강 절벽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꽃이다. 모질고 열악한 환경을 꿋꿋이 이겨내면서도 강인하게 버티고 있는 동강할미꽃, 그 자체의 탁월한 미모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강댐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더 유명해진 동강할미꽃, 그 유명세 때문에 지금은 거의 멸종위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도 모른다.



동강할미꽃(하양)

동강할미꽃의 특징

강원도 영월과 정선 지역의 석회암지대 바위틈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뿌리는 굵고 흑갈색이며, 윗부분에서 잎이 무더기로 나와서 비스듬히 퍼진다. 잎은 모두 뿌리에서 나오고 잎자루가 길다. 높이 약 15~30cm이고, 잎은 3~7개의 작은 잎으로 구성된 깃꼴겹잎이다. 전체에 흰 털이 백백이 나서 흰빛이 돌지만, 표면은 반들거리고 짙은 녹색이다. 흰 털로 덮인 열매의 덩어리가 할머니의 흰머리 같기 때문에 할미꽃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특이하게도 꽃이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고 피면서 갖가지 다양한 색깔을 갖는 것이 일반 할미꽃과 다른 점이다. 동강 유역에서만 볼 수 있는 한국특산식물이다.

동강할미꽃의 꽃과 열매

꽃은 3~4월에 피고, 꽃줄기 끝에서 위를 향해 1개씩 달린다. 꽃의 색깔은 자주색, 홍자색, 분홍색, 흰색 등으로 다양하게 핀다. 꽃줄기는 중앙부에서 나오고 길이 15~20cm이다. 작은 포는 꽃대 밑에 달려서 3개로 갈라지고 다시 잘게 갈라지며, 겉에 흰털이 백백이 난다. 화피갈래조각은 6개이고 긴 타원형이며, 길이 3.5cm이고 폭은 1.2cm이다. 겉에 털이 있으나 안쪽에는 없다. 수술은 많고, 꽃밥은 노란색이다. 열매는 수과로서 긴 달걀 모양이며, 끝에 4cm 내외의 암술대가 남아 있다. 6~7월경에 익으며 가늘고 흰털이 많이 달린다.

동강을 살린 동강할미꽃

과거 한 때 동강댐 건설을 위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동강할미꽃을 보존시켜야 한다는 환경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져서 급기야는 동강댐 건설 계획을 중지시킬 수 있었던 꽃이 바로 이 동강할미꽃이다. 당시 동강댐 건설을 추진 중이던 정부의 정책을 완강하게 반대하며, 동강 살리기에 나선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에게 큰 힘을 보태준 것이 동강할미꽃이다. 세계에서도 유일하게 동강 지역에만 자생하는 동강할미꽃을 내세운 저지세력에 의해 동강댐 건설계획은 결국 2000년 6월 백지화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많은 이들이 생태와 자연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보전과 보호를 위한 노력들이 들불처럼 일어난 게 사실이다.

한국특산식물의 소중함

세계 다른 나라에는 없고 오로지 한국에만 자라고 있는 식물을 한국특산식물이라고 하는데, 이 동강할미꽃이 바로 한국특산식물에 속한다. 특이하게 아름답고 소중한 동강할미꽃의 보호는 정말 시급한 일이다. 과거에는 이 일대에 정말 많았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셀 수도 있으리만큼 개체수가 줄어들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용도 및 번식법

주로 관상용으로 쓰인다. 유독식물이지만 뿌리를 이질 등의 지사제로 사용하고, 민간에서는 화절과 신경통에 쓴다.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한국특산식물이기 때문에 철저히 보호해야 할 식물이다. 7월에 받은 종자를 바로 화분에 뿌린다. 종자를 저장하면 발아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동강할미꽃(보라)



동강할미꽃(빨강)



동강할미꽃(열매)

에 바로 화분에 뿌리는 것이 좋다. 포기나누기는 가을에 뿌리를 약간 상자를 내서 분리하면 상채 난 곳에서 이듬해 봄에 새순이 돌아 나온다.

식물자원의 보호

예쁜 꽃을 나 혼자 보기 위해서 채취하여 기르는 일은 정말 삼가야 한다. 예쁜 꽃일수록 자생지에서 함께 보고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우는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기르는 재배지의 조건은 아무리 노력을 들여도 자생지의 조건을 그대로 모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강원도의 평창, 정선, 영월을 따라 흐르는 동강에서 영원히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겨울철 실내외 식물 관리

생활속의 도시농업

글 사진 정미나 건국대학교 이학박사
정원미화나눔회/ (사)도시농업포럼 교육, 출판부위원
한국의 정원 식물-초본류, 텃밭정원활용목 101 저자

겨울인 지금 한 해 동안 식물을 가꾸면서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개선할 점은 무엇이고 어느 작물을 재배해야 텃밭 여건에 맞는 식물을 가꾸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도시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지 등을 생각하는 반성과 회상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한 때이다.

우선 올해 쓸 예산을 정한 뒤에 종자를 부러서 기를 것인지 모종으로 기를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그에 따라 종자 및 모종, 분화 구매 목록이 나오고 실내에서 키울 것인지 텃밭에서 키울 것인지, 채소를 심을 것인지 허브를 심을 것인지 주저도 정해야 한다.

옥상이나 상자 텃밭에서 재배하는 경우에는 매년 식물을 관리 할 수 있지만

주말 농장, 공동체텃밭인 경우에는 2월 중순에서 3월 말에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각 시, 군, 구, 동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잘 체크해서 신청하는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보통 감자를 심기 위해서는 봄 재배 파종기는 2월 하순(남부지방)부터 4월 상순(중부 중 산간 지방)까지로 감자를 직접 씨감자를 만들어 심을 것이냐 구매 할 것인가에 선택해야 한다. 봄 채소는 4월, 과채소는 4월 말~5월 초가 구매 적기이기에 모종 및 종자 구매 시기도 고려해야 한다. 파종해서 심어야 하는 식물이 있고 모종으로 해야 하는 식물도 있다. 작년에 심고 남은 종자나 결실 한 종자는 채종한 종자를 구별하여 표기하고 종자 리스트를 보고 종자 구매 종류와 수량을 정한다.

겨울철 종자 관리

〈2015년 종자 수집 목록〉



종자 수집 모습

번호	식물명	종자정선	분류	수량	표기
1	종업숙	2015	초본	보통	구매
2	KANG KONG	2015	초본	보통	구매
3	고려엉귀	2015.10.31	초본	보통	자체
4	붉은 호박	2015.11.4	초본	소량	자체
5	달벼슬맨드라미	2015.10.31	초본	보통	자체

유채, 마늘, 양파, 시금치 등 월동작물을 재배하는 곳에는 눈 또는 비로 인해 습해를 받지 않도록 배수로를 충분히 관리하고, 왕겨, 볏짚 등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피복 재료를 확보하여 멀칭해 주면 안전하다.

옥상 텃밭의 겨울철 관리

옥상텃밭은 접근성은 좋으나 농사 여건은 좋지 않은 편이다. 여름철 고온과 바람, 물 관리 등은 물론 노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관계로 이용이 가능한 기간은 4월~11월말까지로 약 240일 정도 된다. 겨울철에도 딸기, 마늘, 양파, 시금치와 보리, 유채 등을 재배하여 녹지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옥상 텃밭에서 가을작물로 김장용 배추 수확이 마무리되는 12월 상순부터 다음해 3월까지 약 100일 동안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자칫 잘못 관리하면 작엽 시 사용하던 각종 자재, 상토 등이 바람에 날려 건물 아래로 떨어지는 등 주변의 환경을 유해를 끼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겨울에도 관리를 해야 한다.

관수 시 설치된 물통에 있는 물은 모두 제거하고 모터는 전기 플러그를 뽑고 모터내의 물도 제거하여 동파를 예방해야 한다. 남은

상자 텃밭의 겨울철 관리

상자 텃밭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도시민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재를 구입하는 경비가 저렴하고 장소를 확보하는데 편리하고 실내·외 생활공간 어느 곳에서도 식물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즐겁게 할 수 있다. 상자 텃밭의 종류로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상자 텃밭, 화분, 사각 스티로폼, 심지용 상자 텃밭 등 다양한 자재를 활용하여 텃밭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재배 가능한 식물은 상자 텃밭을 놓는 장소와 상토의 두께에 따라 다양한 작목을 선택하여 재배할 수 있다. 실외에서의 마당, 옥상, 유휴 공간 등에는 상자 텃밭의 겨울철 관리가 필요하다.

상자 텃밭에 가능한 한 작물의 뿌리를 포함한 잔 재물을 제거하고 상토는 한 곳에 쌓은 다음 잘 부순 후 거적이나 비닐 등으로 덮어 관리한다. 빈 상자텃밭은 깨끗하게 세척한 후 잘 보관해 둔 후 다시 사용하면 된다. 간혹 잔재물만 제거한 후 상토는 그대로 두는 경우

가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봄 작물을 다시 심을 경우에는 겨울철에 보관하였던 기존 상토에 새로운 상토를 20~30%정도 혼합한 후 사용한다. 그러나 상토 구입이 용이하면 상토를 전부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여 사용하면 작물 자람이 더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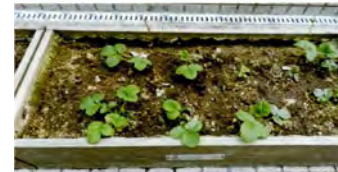
겨울철 실외 관리

1. 씨감자 절단하기

씨감자가 준비되면 소독한 칼로(범비나 솔에 넣고 끓여서 소독함) 씨감자를 절단한다. 크기가 큰 것은 4쪽으로 작은 것은 2쪽으로, 보다 작은 것은 통으로 사용한다. 절단된 조각이 높이 고루 분포하는 구성으로 자른다. 곰팡이 등 방지를 위해 솜이나 재를 바른다. 그늘과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말린다.



2014년 3월 31일 고덕동 공동체텃밭 감자 모습



상자 텃밭에 딸기를 심어 겨울에도 관리
강동구 천호3동 주민센터 상자텃밭



옥상텃밭에 묶은 잎 제거 화분 정리
2015년 2월 8일 월계동 옥상모습



상자텃밭에서 자란 식물 지상 부위 정리
2014년 2월 28일 강동구청옥상 모습



당굴성 식물 묶은 덩굴 제거 정리
2014년 2월 9일 월계동 새광교회 옥상 모습



2015년 12월 1일 국회 생생텃밭 유채 모종 심기



2015년 12월 1일 국회 생생텃밭 유채 모종 심기 후 비닐 덮어 월동준비

겨울철 실내 식물 관리

우리나라는 겨울철 인 11월 초순 ~ 4월 초순에 난방이 되는 실내에서 관리하는 기간이 비교적 길다. 따라서 겨울철의 실내 식물 관리의 적은 광선 양과 건조한 환경, 환기의 불량으로 인한 탁한 공기 등으로 그리 쉽지는 않지만 관심을 준다면 수월하게 식물을 가꿀 수 있다.

겨울철 실내 식물 관리 요령 5단계

1. 추위에 강한 식물과 추위에 약한 식물을 분류한다.

추위에 대한 반응으로 추위에 강한 종류(0~8℃까지 견딜수)는 세덤, 세네시오, 제브라나, 네프롤레피스, 파키라, 관음죽, 종려죽, 아스플레니움, 팔손이나무



종려죽



파키라



팔손이나무

등이다.

추위에 약간 약한 종류(8~12℃ 필요)는 아스파라거스, 에크메아, 크립탄서스, 구즈마니아, 틸란드시아, 콜레우스, 인도고무나무, 코르딜리네, 세플레라(홍콩야자), 드라세나, 필레아, 필로덴드론, 마란타, 호야, 스킨답서스, 몬스테라, 야자류, 유포르비아, 베고니아 등이다.

추위에 취약한 종류(12~15℃ 필요)는 아그레오네마, 아펠란드라, 아로카시아, 안스름, 칼라디움, 크로톤, 커피나무, 싱고늄, 스파티필럼, 디지코네키아, 디펜바키아, 드라세나, 판다누스, 피토니아 등이다.

2. 겨울철에는 물주기 기간을 조금 늘려서 준다.

생장이 느려지는 휴식기이기에 물을 너무 자주 주게 되면 과습하여 뿌리가 썩을 수 있다. 겨울철 공중습도 유지는 사람에게나 식물에게나 좋다. 실내공기가 건조하다 하더라도 화분에만 물을 주는 것보다 분기로 물을 뿌려주거나 수반에 물을 받아놓아 증발시키는 요령이 필요하다.

건조에 대한 반응으로 건조에 강한 종류는 알로에, 선인장, (무늬)접란, 크로톤, (원통형)산세베리 아세틀, 소철류, 페페로미아, 헤데라, 유포르비아 등이다. 건조에 약한 종류로는 아디안툼, 구즈마니아, 브리세아, 아로카시아, 안스름, 싱고늄, 디펜바키아, 마란타, 칼라데아, 아글로네마, 스킨답서스 등이다.

3. 햇빛 요구도에 따라 분류한다.

햇빛이 강한 베란다나 창가에서 관리하면 되지만 온도 조건도 겸해서 생각해야 한다.

호광성 식물로는 선인장 종류, 율마, 야래향, 에크메아, 야나나스, 유도화, 유포르비아, 크로톤, 드라세나, 피닉스 등이 있으며 난 종류로는 카틀레아, 반다, 야생란 등이 있다.

협광성 또는 음지식물은 실내의 안쪽에서 기르며 햇빛이 좀 부족하더라도 형광등이나 백열등이 비치는 곳에서도 잘 자란다. 왜란, 관음죽, 아펠란드라, 아레카야자, 디펜바키아와 잎이 얇은 초화류의 일부와 양치식물, 난의 호접란, 파피오페틸름 등이 있다.

4. 환기를 자주 시킨다.

가급적 햇빛이 잘 비추어지는 곳에 통풍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식물에게 좋다. 실내에는 먼지가 식물의 잎에 쌓일 수 있으므로 자주 털어주고 물을 뿌리거나 젖은 수건으로 자주 닦아주는 것은 식물의 숨구멍이 막히는 것을 예방하고 잎의 탄소동화작용



인도고무나무



세플레라 '홍콩야자'



구즈마니아



크로톤



커피나무



안스름



원통형산세베리아



소철



무늬접란



아글로네마 '철 오로라'



알로카시아



스킨답서스



드라세나 '트리칼라 레인보우'



율마



야래향

도 도와주는 것이다.

5. 겨울철에는 분갈이는 되도록 하지 않는다.

겨울철 분갈이는 냉해를 입을 수 있다. 생장이 느려지는 겨울철에는 분갈이를 하지 않고 또한 비료도 겨울철에는 주지 않는다.



아펠란드라



호접란



관음죽

겨울철에 실내 식물 키우기

1. 수경재배(Hydro culture)

물에 비료를 알맞게 조제하여 배양액을 만들어 넣어 준다.

히야신스, 호야, 드라세나(행운목), 마란타, 크로커스, 석창포 등 꽃 종류와 고구마, 감자, 양파, 무, 마늘, 토란, 미나리, 배추 등 채소류를 키워도 잘 자라고 교육적인 효과도 볼 수 있다.



2015년 12월 16일



미나리 심은 지 3일 후 모습

- 수경재배로 미나리 키우기

감장에서 남은 미나리의 진흙 묻힌 뿌리를 플라스틱에 넣고 물을 뿌리에 잠기도록 넣는다.

햇빛이 드는 곳에 놓고 마르면 물을 준다. 식물도 키워 먹고 겨울철 습도 유지도 된다.



미나리 심은 지 10일 후 모습

2. 접시정원(Dish garden)

접시와 찻잔, 컵, 컵테일 잔 등 생활 용기에 흙(배양토)이나 물을 채우고 솔방울이나 메타세콰이어 열매를 이용하고 여러 가지 관엽 식물이나 초화류, 채소류 등을 심어 장식하고 감상하면 거기서 증발하는 수분으로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솔방울 모습

- 솔방울, 메타세콰이어 열매를 이용한 디쉬 정원

아파트나 주변에 떨어진 솔방울이나 메타세콰이어를 수집해서 깨끗이 씻은 다음 접시나 그릇에 놓고 물을 넣어 준다. 물이 마를 때마다 물을 공급해 준다. 실내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습도도 유지해 좋다.



메타세콰이어 열매 모습

윤정식 교수의 허브 & 아로마테라피

필리핀 일랑일랑 국가프로젝트 (지원 사업) ②

필리핀 APEC 적정기술 보급 및 연구개발 역량강화사업
(2014-2016/45만불)

글 사진 윤정식 - 생활의 향기 대표, 원광디지털대학교 외래교수

필리핀이 원산지인 일랑일랑 허브는 필리핀 Tarlac City에 있는 Anao시에서 가장 많이 재배가 되고 있다. 필리핀의 일랑일랑 수도인 Anao시에서는 1980년대부터 에센셜오일을 직접 추출하면서 향수, 향초 등 일랑일랑 관련 제품을 일부 생산하고 있었다.

우리 필리핀 일랑일랑 국가프로젝트 전문위원들은 한국발명진흥회 변리사 2명, 홍보마케팅 교수 1명, 오일추출기 전문위원 1명(연세대 이상명교수), 그리고 2차상품 교육및 개발 전문위원인 나까지 모두가 2014년부터 Anao시를 방문해서 지금도 일랑일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추출한 오일추출기는 노후가 되어서 우리 팀들이 일랑일랑 오일 추출에 맞는 새로운 오일추출기를 개발해서 필리핀 현지에서 생산해왔으며 지금은 오일추출기 10대가 보급되어 있다.

일랑일랑 꽃은 주로 새벽에 학생들이 나무에 올라가서 꽃을 따다. 일랑일랑 나무는 20m정도 까지 자란다.

아침에 갓 따 일랑일랑 꽃을 무게를 달아서 트레이에 넣고 일랑일랑 오일추출에 들어가게 된다. 일랑일랑 오일은 시간과 비중에 따라서 Ylang-ylang Extra, 1st, 2nd, 3rd 등급으로 나뉜다. 엑스트라와 1st 등급은 향수 원료나 아로마테라피 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2nd, 3rd 등급은 비누, 향초 용으로 사용되어진다. 오일 추출시간은 8시간 정도 걸리는 데, 등급을 나누지 않고 추출한 오일을 ylang-ylang Complete 라고 부른다.

필자는 아나오시 직원들과 선별된 교육생들에게 Aromatherapy Educational Training Program을 기본과정과 고급과정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시간	주제	주요 수업내용	아로마 실습
첫째날 10:00-12:00	허브, 아로마테라피란?	허브, 아로마테라피의 정의, 에센셜 오일 정의, 추출방법, 적용기전, 필리핀의 허브들	
첫째날 13:00-17:00	일랑일랑 오일과 워터 사용방법	아로마 사용방법, 일랑일랑 오일의 특징 및 효능, 일랑일랑 워터 사용방법	일랑일랑 비누 만들기
둘째날 10:00-12:00	2차 상품 체험 교육1	일랑일랑 2차 상품 제조에 필요한 체험 교육	일랑일랑 향수만들기
둘째날 13:00-17:00	2차 상품 체험 교육2	일랑일랑 2차 상품 제조에 필요한 체험 교육	허브스프레이 만들기(모기퇴치, 근육관절)



시정일 교육 후 촬영



예전 오일추출기



예전 오일추출기



일랑일랑 꽃을 따온 아이들



교육 체험



아이들의 손전반한 모습-일랑일랑 꽃을 손에 들고



필리핀 일랑일랑 수도 간판앞에서

허브와 아로마테라피에 대해 설명해 주고, 필리핀에 자생하는 허브들을 직접 갖고 오게 해서 설명도 듣고, 일랑일랑 오일과 워터에 대해 사용하는 방법들을 설명해 주었다. 그동안 일랑일랑 워터와 시트로넬라 워터를 버리고 있었는데 그 워터들의 활용방법과 소중함에 대해서도 알려 주었다.

그리고 직접 일랑일랑 오일을 사용해서 일랑일랑 비누도 만들고, 천연 일랑일랑 향수도 체험하면서 수업분위기는 고조되어갔다.

시트로넬라 허브에서 추출한 시트로넬라 오일과 워터를 활용해서 모기퇴치스프레이를 만들고, 일랑일랑워터와 오일, 페퍼민트, 로즈마리, 마조람 오일 등을 이용해서 근육관절스프레이를 만들면서는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수업이 끝난 후 감사한 마음을 서로 나누며, 2016년 3월 일랑일랑 페스티벌에서 우리가 만든 제품과 체험, 그리고 일랑일랑 2차 상품을 제조해서 판매할 생각을 하며 희망찬 꿈을 함께 꾸게 되었다!

Tip 1. 필리핀산 허브와 활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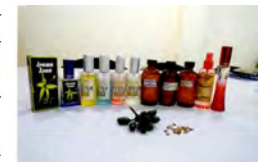
- 시트로넬라 허브: 모기퇴치용
- 레몬그라스 허브: 치킨에 사용, 찐스 등
- 오레가노 허브: 잎을 스프나 음식에 활용
- 볼로키아: 잎을 스프에 활용
- Sampaquita: 필리핀의 국가 꽃으로 목걸이 등에 꽃을 활용

Tip 2. 에센셜오일의 정의와 일랑일랑 오일과 플로럴 워터 활용방법

- 에센셜오일: 향기나는 식물의 꽃, 잎, 줄기, 뿌리, 열매 등에서 추출한 휘발성 정유로서 식물의 에너지를 그대로 간직한 살아있는 물질
- 일랑일랑 오일의 활용방법: 릴렉스-숙면에 도움, 고혈압을 정상화, 최음제, 심계항진, 피지 분비의 정상화, 모발 성장 촉진, 향우울 등
- 일랑일랑 워터의 활용방법: 피부에 스킨처럼 사용, 피지 분비 정상화, 미스트로 활용, 물 대신 기능성 물질로 사용

다음달 3월 14일~16일에 열리는 146번째 일랑일랑 페스티벌이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내 마음은 이미 일랑일랑 축제로 향하고 있다.

*Fantastic Ylang-ylang
Fiesta(Festival)을 위하여~!!!*



일랑일랑 향수 및 오일, 기타



일랑일랑향수 진열판에



필리핀의 약용식물 및 허브들



삼박기타



레몬그라스 허브



볼로키아



바질



붉은줄기-시트로넬라, 그린-레몬그라스



시트로넬라



오레가노



유칼립투스

정원과 아이들 (Garden & Kids)



아이들에게 정원이란 공간에서 최우선이 안전이다. 그 다음에 함께 가꾸고 즐길수 있는 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야외와 비교하여 정원은 아이들에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미리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원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따라하기 쉬운 규칙 몇가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글 사진 편집실

안전이 최우선

1. 정원에서 위험을 줄이기

- ✓ 절대 어린 아이들을 정원에 혼자 두지 마라
- ✓ 맨홀이나 지하실 뚜껑 (또는 미끄러지는 공간 입구) 가 열려 있거나 안전장치가 불완전한지 확인하고 아이들을 두기 전에 그것이 안전한지 확인하라.
- ✓ 정원 경계 주변의 철조망을 포함한 날카로운 물건을 치우고 장미와 매자 나무 (매자 나무 종) 같은 가시가 있는 식물들 뿐만 아니라 칼 모양 잎을 가진 식물들 (예) 유카, 용설란을 제거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라.
- ✓ 만약에 작은 배임이나 가시에 찔렸을 때 상황에따라 파상풍 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 ✓ 주변에 애완동물이 있다면 정원에 대변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찾아서 정기적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들어오자마자 반드시 항상 손을 씻게 해라.
- ✓ 화학 물질과 마찬가지로 야외 페인트와 방부제, 잔디 깎는 기계, 연료, 기름, 윤활유, 비료를 포함한 도구들을 안전한 곳에 넣어둬라.
- ✓ 만약 아이가 독성이 있는 무언가를 먹었다고 추측한다면 즉시 식물의 샘플을 가지고 아이를 응급실에 데리고 가야한다.



1 아이들 혼자 정원에 두지 말고 항상 부모와 같이 하는 것이 좋다.



2 실용카치원 굴이 날카로운 식물들은 아이들이 가까이 있는 곳을 피해서 심는 것이 좋다.



3 정원에서 애완동물과 같이 노는것도 아이들 창사에 도움이 된다.

2. 여름의 햇빛

아이들은 햇빛으로부터 약해서 장시간 노출된다면 나중에 고통스러운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건강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 ✓ UVA 나 UVB 차단지수가 높은 아동용 선크림을 발라라. 선크림을 자주 덧바르고 한낮의 태양아래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제한해라.
- ✓ 챙이 있는 모자를 써라.
- ✓ 나무 아래, 텐트나 임시적인 캐노피 아래의 그늘진 공간을 제공해라.
- ✓ 긴 소매 티셔츠는 태양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줄 것이다.



4 아이들의 피부가 오랜시간동안 햇빛에 노출되는 것은 좋지 않다.



5 챙이 있는 모자를 쓰는 것이 좋다.



6 햇빛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긴 소매 티셔츠를 입는 것이 좋다.

3. 손과 발

가능한 아이들은 장갑 없이 정원에 다녀야한다. 이것은 아이들의 감각 경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시가 있거나 자극적인 식물들을 도구 사용하여 파거나, 자르거나, 잡을 경우 아이들은 원예용 장갑을 써야한다.



7 정원에서 놀고 오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가능한 아이들은 장갑없이 맨손으로 정원을 경험하는 것이 좋다.

아이들이 정원에서 놀고 돌아왔을 때 반드시 손을 씻었는지 물어보아야 된다. 그리고 야외에서 손톱을 물거나 손가락을 할지 않게 해야된다. 무릎까지 오는 장화나 튼튼한 신발은 도구나 날카로운 것으로부터 발을 보호해준다. 그러므로 원예작업을 할 때에는 항상 부츠를 신는 게 좋다

4. 도구와 장비를 사용하기

아이들에게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사고를 예방하고 정원만들기를 더 보람 있게 만들어 준다. 도구와 장비를 사용한 후에 그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정원에 걸어놓는 습관을 들게 해주어야 한다.

- ✓ 땅을 파거나 자르는 도구를 사용할 때 두꺼운 원예용 장갑을 꺼라.
- ✓ 땅을 팔 때 삽으로 너무 많은 흙을 옮기지 마라. 어른의 도움이 필요하다.
- ✓ 가지치기용 가위를 사용할때는 항상 어른들이 옆에서 보고 있어야 한다. 아주 어린 아이들은 가위를 사용하면 안 된다.
- ✓ 괭이, 갈퀴 또는 다른 긴 손잡이의 도구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주어서는 안된다.



9, 10. 아이들에게 정원에서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좋다.



10

세계의 식물원



글 사진 서준혁

위슬리가든(Wisley Garden)

식물원으로서 약 1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위슬리가든은 당시 런던의 유명한 대기오염을 피하기 위해서 현재의 위치에 자리잡게 되었다. 위슬리가든은 런던에서 서쪽으로 약 30여 km 정도의 거리에 있는데 그 면적은 97헥타에 이르며, 직원은 약 150여명 정도로 일년에 방문객이 75만명에 달한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비교적 잘 알려져 있어 식물에 관심이 있는 방문객이라면 한번쯤 들르게 되는 곳이 되었고 조경식물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물원이다.

위슬리가든의 시초로는 1978년에 당대의 사업가이자 발명가였으며, 원예가이기도 했던 조지 퍼거슨 윌슨(George Ferguson Wilson)이 생육시기기에 어려운 식물들을 기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여 정원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백합류, 붓꽃류, 프리울라 및 수생식물을 위주로 수집·식재하였다. 1903년에 이르러 윌슨은 세상을 떠나고, 토마스 한버리(Thomas Hanbury)경이 부지를 매입하여 왕립원예협회의 재산으로 기부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위슬리가든은 왕립 원예협회의 주관으로 철저하게 회원제로 운영된다. 즉 회원들은 무료입장을 할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열리는 각종 원예전시회(Horticultural Show), 강연 및 국내, 국외의 우수한 식물원 등지를 방문하는 장·단기 여행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위슬리가든은 현재 조경식물의 자원을 위한 국가의 대표기관(National Collection)으로 되어 있다. 위슬리가든이 제공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설계를 제외한 원예·조경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1년 코스의 인턴제도(Internship)를 운영하고 있는데, 입학정원은 약 30여명 정도로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하나 통근하는 사람도 있으며, 일하고 배우는 체제를 확립해 두고 있다. 이 코스의 이수자들은 원예사, 원예기술사 및 원예기술사 자격을 각각 취득하게 되는데, 왕립 큐우 식물원의 원예학교(School of Horticulture)에서 운영하는 단기학위(Diploma) 코스의 수료자와 함께 실무 분야에서 대환영을 받는다.

일반시민을 위한 전시를 위주로 하고 있는 위슬리가든은 일반 주택정원에서 응용성과 실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실용적인 정원형태에 중



다양한 품종의 스위트피를 선보이고 있다.

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조경식물의 실제적인 모든 면을 보면서 배울 수 있도록 각 장르별로 구성해 놓았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 이뿐만 아니라 계절별, 월별, 요일별로 1년간의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침엽수원, 여름식물용 정원, 장미 신품종 전시원, 겨울식물용 정원, 채소전시원, 유실수원, 고산식물온실, 암석원, 향료식물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이처럼 1년 사계절의 이용뿐만 아니라 각 정원마다의 특성을 두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게 만드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뚜렷한 사계절을 가지고 있지만 광범위한 면적을 사용하기 힘든 국내사정에 위슬리가든은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소형의 암석정원



아름다운 수변식물이 연못을 조성하고 있다.



일년생초화류로 이루어진 다양한 형태의 꽃조형물



놀라울정도로 커다란 수변의 대형식물



다양한 고산식물이 전시된 온실



위슬리가든센터

정원을 꿈꾸는 사람들

글 사진 우정아



아파트 베란다정원 미야의 정원 (오미야 53)

하남시에 위치한 미야의 정원은 아파트 베란다 정원으로 11년의 스토리를 가진 13㎡(4평)의 아담한 정원이다. 파벽돌을 경계적으로 만든 타원형의 화단 정원에는 벽면을 기어오르며 짙은 푸름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아이비, 마삭줄과 연산홍, 남천, 천리향, 치자, 만능금, 팔손이,

고무나무, 장미, 익소라, 백화등, 동백, 풍란, 다양한 다육식물 등이 군락을 지어 자라고 있는데, 실내라는 장점을 살려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다는 이점을 충분히 보여 주고 있다.



아파트를 구입할 때 이미 정원에 대한 로망으로 2층이라는 입지 조건을 선택하여 창 밖의 전경을 배경으로 연계시키는 정원을 조성하였다. 조성할 당시에는 전혀 식물에 대한 지식이 없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한 것이라 시행착오도 많고 고사한 식물도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수종을 구입하면서 판매하는 이에게 자문을 구하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어서 작은 공간 안에서도 각각의 환경에 맞는 공간에 식재하고, 도리어 식생이 너무 좋아서 나눔을 해주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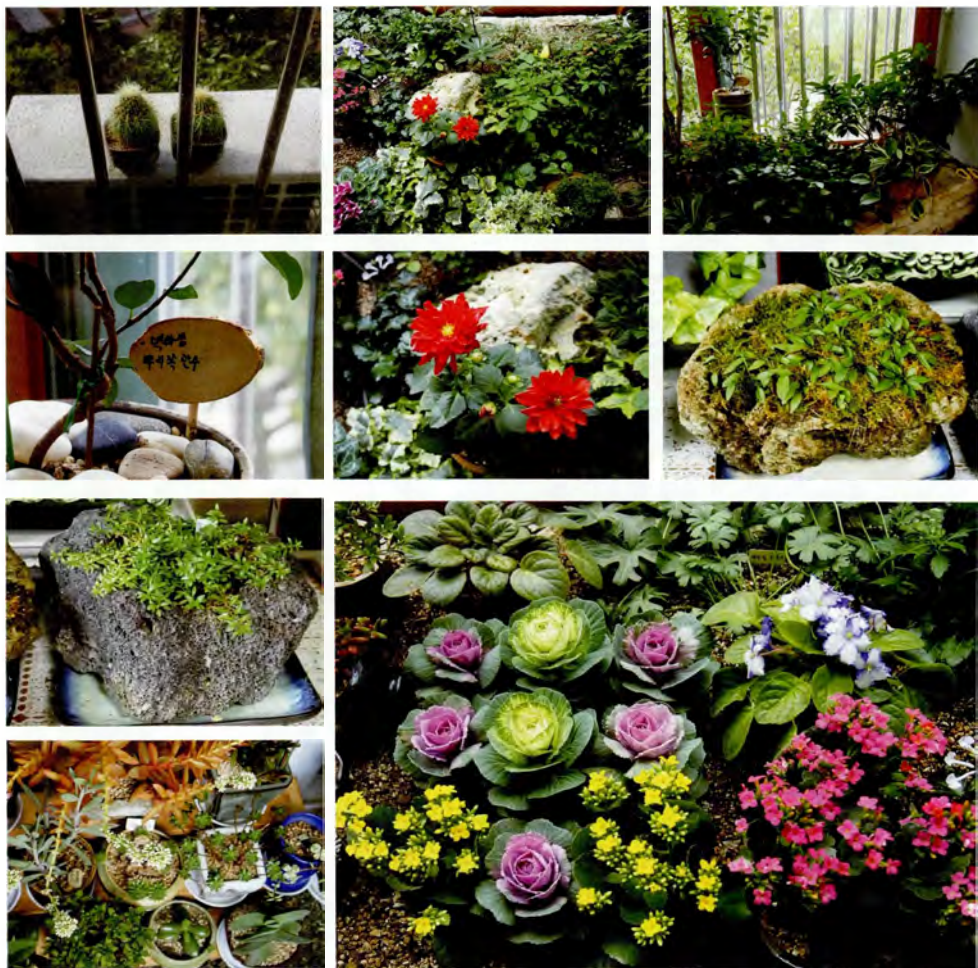
특히 동백은 3월부터 11월 말까지 베란다가 놓아 두다가 겨울에는 실내에 들여 놓아야 꽃눈이 얼지 않고 꽃을 볼 수 있고, 다육식물 중 잎의 색이 선명한 것들은 직사광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낮 동안 예어컨 실외기 위에 내놓아 충분히 빛을 받을 수 있게 하며, 화단에 식재한 것은 도자기 화분에 심겨진 그대로 다시 식재 해 얼지 않고, 배수가 잘 되도록 관리 한다.

관리시간은 아침에 모닝커피를 마시면서 둘러 보고 관리하며, 식생이 왕성한 봄, 여름에는 저녁에 한번 더 관리해 준다. 관수는 샤워기를

주로 사용하는데 여름에는 3~4일에 한번, 봄 가을에는 1주일에 한번, 겨울에는 1달에 한번 정도 관수한다. 화분에 식재된 식물은 핑거 테스트를 해 보고 관수한다. 비료는 친환경 고체비료로 시중에서 판매하는 밤색 알갱이를 분기별로 주며 관리하고 있고, 방제는 봄에 새눈에 해충이 주로 생기기 때문에 새 눈이 나오면 유심히 관찰 후, 먼봉으로 일일이 제거하고, 샤워기를 사용해 세척해 주고, 실내면역용 방제 스프레이를 쓰거나 소독약 물을 1000배 희석해서 세척해 준다고 한다.

실내라는 제한된 공간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지, 전정을 수시로 해 주고, 통풍과 온도 조절, 고온에서 잘 자라는 열대 아열대 식물을 선택하여 너무 자라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한다.

다른 집들의 베란다가 가보면 습해서 곰팡이가 생겨 보기 흉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해로운데 반해, 정원이 공중 습도 조절이 되어 조금 좁게 살더라도 맑은 공기가 생기는 것 같은 느낌과 시각적 힐링, 음이온과 피톤치드, 식구들과의 대화의 주제가 생기고 친구들과도



SNS소통의 소재가 되고 모르는 이와도 쉽게 친해질 수 있어서 정원으로 인한 인간관계에 소중함을 깨닫고 있다고 한다.

40대 후반에 왔는데, 갠년기 우울증이 심하게 왔는데, 바깥 일에 항상 바쁜 남편과 한참 입시에 시달리는 아이들에게 내색은 못하고 힘들 때 식물의 자라는 모습, 꽃피고 열매 맺는 모습을 보며 마음의 위안과 편안함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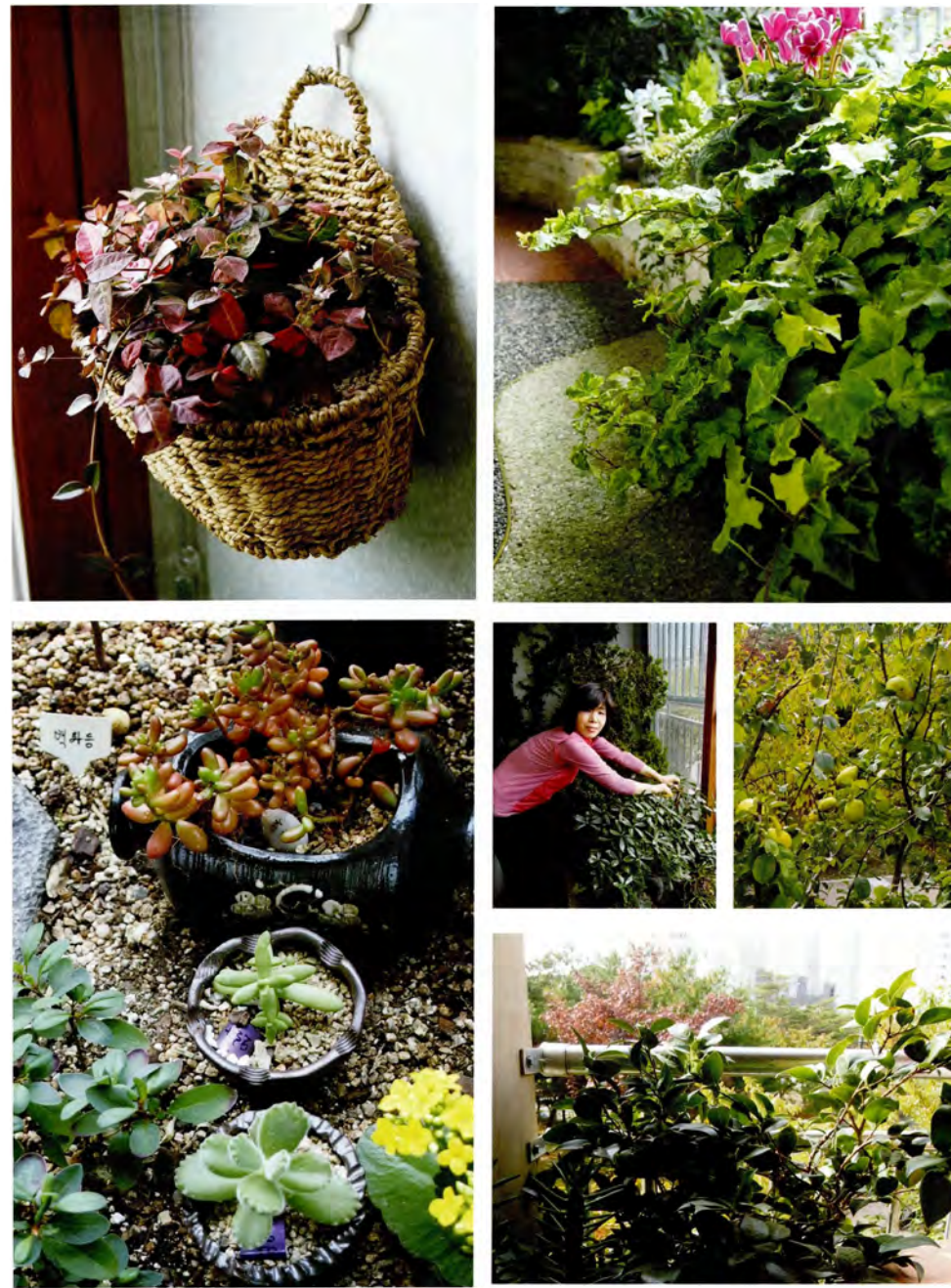
한번은 베란다 유리가 깨져서 정원을 해체해야 베란다 유리를 갈아 끼울 수 있다는 이야기에 상심하여 여러 곳을 수소문한 끝에 사다리차를 이용해 철로 만든 바깥 난간을 뜯어내고 유리를 갈아 끼운 후에 다시 용접하는 수고로움까지 감수하며 지켜낸 정원이다.

그래서인지 주인장의 핸드폰 사진첩에는 인물 사진은 한 장도 없고, 식물 사진만 가득했다.

“유리창을 깨끗이 닦아 놓으면 가끔 새들의 착시로 인한 충돌사고도 생기지만,

새들이 베란다 앞에서 놀다가 가는 모습과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도 정원으로 인해 즐거움이 되었어요.

소중한 정원의 꽃들을 보면서 사계절을 더욱 진하게 느끼고 살아요. 이런 것이 꿈속 세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만의 도시생활을 경작한다! 국내 옥상녹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옥상텃밭’

글 사진 편집실

맨하튼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브루클린의 오래된 베이글 공장에 뉴욕커들이 모여 앉아 있다. 공장의 옥상에는 갖가지 신선한 채소들이 심겨져 있고 작은 시장까지 열린다. 이 텃밭은 작은 커뮤니티에서 꾸러가고 있는데 농업프로그램과 농장마켓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 레스토랑에 채소를 공급하기까지 한다. 지역민들은 자원하여 커뮤니티의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면서 도시농업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미국 반대편의 로스앤젤레스 도심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SYNThe Green Roof는 옥상 전체 면적 279㎡중에서 139㎡의 면적에 식용작물이 재배되고 있다. 목적은 자급자족이 가능하며 지속가능한 옥상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텃밭의 운영 주체는 레스토랑의 요리사들과 주민이다. 직접 수확할 수 있는 과일나무와 포도나무, 허브와 채소류가 포함된 채소정원을 만들고 가꾸는 일에 동참하고 있으며, 옥상에서 재배한 채소들은 레스토랑에서 <오늘의 특별요리>로 사용된다.

그럼 가까운 일본을 가보자. 룩본기힐즈의 상업시설의 옥상엔 한적한 시골 풍경을 통째로 옮겨놓았다. 주민들에게는 무료로 임대되는 자신만의 텃밭인 셈이다. 지방정부 중심으로 제도적으로 매우 활성화되어 있어 일본의 옥상 정원 전체 면적은 축구장 280개



뉴욕 NYC's rooftop gardens의 옥상텃밭 모임

의 규모라고 하니 대단하다. 이러한 옥상 정원의 용도가 도시농업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한다.

쿠바의 생태도시농업, 영국의 알로트먼트, 독일의 클라인가르텐, 미국과 캐나다의 커뮤니티가든 등 불려지는 이름도 다르고 밭생한 이유, 규모, 형태도 다르지만 많은 나라에서 도시농업이 발전하고 있다. 지구적 기후변화로 인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대안으로서 전세계 도시에서는 도시농업을 택한 것이다. 직접적 녹화 효과로 도시의 생태성을 확보하고 로컬푸드 소비로 인해 운송과정에서 탄소절감효과를 가져온다. 뿐만 아

니라 지역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도 대단하다. 스스로 키운 먹을거리는 음식 이상의 의미이다. 식물을 재배하는 것은 생명의 성장을 지켜보는 생생한 환경 교육이며, 재배의 즐거움과 수확의 기쁨을 이용자에게 준다.

우리나라에서도 각 가정의 베란다나 옥상 등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도시농업'인 '옥상텃밭'이 많이 보급되어 지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나라 도시농업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밀집된 빌딩의 규모나 가족, 회사 등 집단 구성원들의 유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적인 문화 그리고 웰빙, 로하스 등 친환경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 세계적인 IT 강국인 만큼 큰 이슈에 대한 파급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다른 나라들이 거친 시간적인 성숙단계를 단번에 뛰어넘어 빠른 시간에 급속한 성장파급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21세기 성장 동력의 한 축인 생태산업과 맞물려 그 확장폭이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도시의 옥상텃밭의 활성화가 농촌경제에 영향을 끼칠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도시농업이 활성화된다고 해서 농촌농업에 영향이 간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오히려 도시민에게 농산물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농촌의 전문화된 재배방식과 안전한 생산 방식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농촌의 농업과 도시의 농업은 경작의 규모와 작목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농촌에서 행해지는 규모적인 재배와 저장, 운송 등을 고려한 작목과 각 작목별 요구되는 품종과 도시에서 소규모 취미생활로서 요구되는 작목과 그 품종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아마추어인 개인이 한 평 공간에 심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소비하며 감각적으로 평가하고 즐길 수 있는 보다 차별화되고 다양한 품종의 보급이 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흙 속에 숨겨져 있는 생명을 발견하는 놀라움, 도시에서도 자연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 10세 소녀에서 40세 아저씨, 80세 할머니까지 한자리에서 소통하는 도시 공간 '옥상텃밭'이 여러분의 도시생활을 풍요롭게 경작해 줄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로스앤젤레스의 옥상텃밭



밴쿠버 ST. Paul Hospital 옥상정원 가꾸기 커뮤니티 모임



옥상에서 쉽게 재배할 수 있는 쌈채소



다양한 옥상텃밭용 재배용기



일본 시카타 가든센터의 다양한 채소종자

해외사진 출처
www.ediblemanhattan.com
/ www.inhabit.com / Ian Lindsay, City Farmer News

힐링원예

글 사진 김해숙(신안대학교 교수 / 실내원예 및 힐링원예 저자)

영국 BBC 방송 다큐멘터리에서(행복10계명)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작은 화분 하나라도 식물을 가꾸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식물과의 교감으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필자는 이번 호부터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식물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우리네 삶을 좀 더 풍성하게 가꾸어 볼 수 있도록 써내려 가보고자 합니다.



Step1.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공기정화식물

왜 실내에서 식물을 키워야 하는가

가) 실내 습도, 온도 조절

식물은 기공을 통한 증산과 식재용토(畝)에서 증발하는 수분에 의하여 실내 습도를 조절한다. 실내 대기가 건조하면 증산, 증발량이 증가되고 습하면 감소되는 자기조절(Self-Control)능력이 있다. 실내 면적의 5~10%정도의 식물을 배치하게 되면 습도를 20~30% 높일 수 있고, 여름철, 겨울철 1~3도의 실내온도를 낮추거나 높일 수 있다.

높이 1.8m인 아레카야자는 증산작용으로 하루에 1L 정도의 수

분을 방출한다.

나) 공기오염물질 제거

실내에는 건축재료, 세탁용제, 카페트 접착제, 가구류, 페인트 등에서 방출되는 약 300여개의 휘발성 유기물질(Volatile Organic Compounds : VOCs)이 존재한다. 이러한 물질은 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발암성 유발 물질 중 하나이다. 특히 합성 건축재를 다량 사용한 새집일수록 많이 존재한다. 오염물질은 식물의 잎과 뿌리 부근의 미생물에 의하여 흡수, 분해된다.

▶ 공기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식물

1.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 드라세나 맛상레아나 (유명명: 행운목), 산세베리아, 스킨디브스, 국화, 접란, 필로덴드론



〈드라세나맛상레아나:행운목〉



〈산세베리아〉



〈스킨디브스〉

2. 벤젠(Benzene) : 드라세나 마지나타, 국화, 거베라, 드라세나 와네키, 아이비, 스파티필름



〈드라세나 마지나타〉



〈아이비〉



〈거베라〉

3.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 드라세나 마지나타, 국화, 스파티필름, 드라세나 와네키, 거베라



〈스파티필름〉



〈국화〉

다) 미세먼지 제거

기공을 통해 미세먼지를 흡수하거나 잎 표면에 있는 털 등에 흡수하여 미세먼지를 제거한다.

오염물질	발생원	인체 영향
분진	대기 중 분진이 실내로 유입	규폐증, 진폐증, 탄폐증, 석면폐증
담배연기	담배, 권연, 파이프담배 등	두통, 피로감, 기관지염, 폐렴 기관지 천식, 폐암 등
연소가스	각종난로(석탄, 가스, 석유) 벽난로, 연료연소, 가스레인지	만성폐질환, 기도저항 증가, 중추신경 영향 등
포름알데히드	각종합판, 보드, 가구, 단열재(UFF), 소취제, 담배연기, 화장품, 옷감 등	눈, 코, 목 자극증상, 기침, 설사, 어지러움, 구토, 피부질환, 비염, 정서불안정, 기억력 상실 등
석면	단열재, 절연재, 석면타일, 석면, 브레이크, 방열재 등	피부질환, 호흡기 질환, 석면증, 폐암, 중피종, 편평상피 등
유기용제	페인트, 접착제, 스프레이, 연소과정, 세탁소, 의복, 방향제, 건축자재, 왁스 등	피로감, 정신착란, 두통, 구역, 현기증, 중추신경 억제작용 등

(실내 오염물질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기환경연구회, 2001)

식물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피토케미컬(Phytochemical)

피토케미컬에는 Phytoncide, 허브향, 꽃 향, 정유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나무향은 피톤치드, 초본류 식물의 향은 허브, 꽃의 향은 향기라고 한다. 피톤(식물) + 치드(살균력)의 합성된 말이며 식물들이 만들어 내는 살균성을 가진 모든 물질을 통틀어 지칭하며, Phytoncide의 효능은 쾌적감, 탈취효과, 향균, 방충 효과가 있다. 특히 라벤더, 캐모마일, 고추냉이, 겨자 등의 허브는 향균 효과가 높다. 또한 일부 향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Cortisol의 농도를 감소시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시민정원사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

조경가든대학 '이천그린아카데미 8기' 모집



과정 안내

주 최: 경기농림진흥재단 / 주관: 우리꽃연구소
교육기간: 2016년 3월 하순~(매주 수요일)총 14강

***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교육시간: 오전 10시 30분 ~ 오후 3시 30분

장 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송곡리 696) 우리꽃 교육장
수강료: 25만원 (총 65만원 중 경기도 거주자에 한하여 경기농림진흥재단 40만원 지원)

강좌혜택: 우리꽃 행사 및 무료특강에 우선기회 제공 및 수료증 제공

교육문의: 전화 031-712-7009

팩스 031-634-7991 / gardenjoa777@naver.com

교육후기: http://gardenjoa777.blog.me

강좌소개

우리꽃 이천 본사에서의 생생한 실습현장에서 당일 배운 이론을 적용해봅니다.

각 분야 전문 강사진의 실질적인 교육내용을 제공합니다.

매주 우리꽃 농원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정원문화의 폭넓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우리꽃 교육의 중심강좌로 그린아카데미 동문회에서 다양한 정원문화 활동을 전 개합니다.

강의순서	강의내용
제 1강	개강식/ 정원의 이해
제 2강	정원의 계획과 설계
제 3강	수목의 종류와 특성
제 4강	식물의 번식 / 잔디관리
제 5강	실내정원조성
제 6강	식재 및 관수
제 7강	수목의 전지 전정
제 8강	채소정원 조성
제 9강	정원답사
제 10강	병해충관리
제 11강	실외정원조성
제 12강	식물의 환경과 생리
제 13강	식물의 비배 및 월동관리 / 수료식
제 14강	식물번식

조경가든대학 공통커리큘럼이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31-712-7009
팩스 031-634-7991
gardenjoa777@naver.com

가든조아
Seed the Dream, Unroll it.

www.gardenjoa.com

정원도구 특가세일

'베란다 텃밭, 옥상텃밭, 정원관리에 활용하는 도구 총집합!'

20%
~최대 30%할인



손도구 앞치마 7종세트

22,500 →
18,000원

정원도구세트의 최강자! 앞치마에 요긴한 정원도구들을 담아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구성: '스테인레스 티 블레이드 하드우드 손잡이', 모종삽, 갈퀴2종, 파종기, 창갑(PVC코팅 그림), 앞치마 포함

손도구 가방 7종세트

18,000 →
12,000원

파종하기 모종 옮겨심기 결순따기 가지고르기 등 텃밭관리에 필요한 도구를 가방 안에 모두 담았습니다. 정원 손도구 가방 세트로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구성: '크롬도금 스틸 블레이드, 우드손잡이' 분무기, 전지가위, 모종삽2종, 갈퀴, 끈(30미터), 가방 포함



손도구 앞치마 4종세트

15,000 →
10,000원

기본도구만 알차게 담았다! 가든도구 5종세트입니다.

구성: 저탄소 강스틸블레이드, 크롬도금, 우드손잡이(도구 길이 약 25.5cm), 갈퀴2종, 모종삽 2종

어린이 앞치마 4종세트

11,250 →
7,000원

어린이 텃밭 정원에 필수품
어린이가 텃밭 활동에 필요한 정원 손도구들을 귀여운 앞치마 안에 모두 담았습니다.

구성: 무독성 코팅 스틸블레이드/우드손잡이, 삽2종, 갈퀴, 앞치마 포함



2만원 이상 구매시 재배백 사은품 증정!(넬러드재배백/ 당근재배백 중 랜덤 발송)

- 어디든 간편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텃밭 상자형 플라스틱 백입니다.

blog.naver.com/gardenjoa777 가든조아:031-712-7009

가든인 칼럼

조경의 완성미를 위해 규격포트로
변화를 주어야 한다.

글 사진 박공영 우리씨드그림 회장 이희번사



조경에 있어서 식물 특히 조경용 지피식물의 식재가 마지막 공정이다. 때문에 식재가 완료되면 모든 작업이 끝난 것으로 이해하고 그 찬란한 마지막 효과를 기대한다. 그러나 한국의 일반적인 조경은 끝이 나도 대개 완성은 아니라고 말한다. 식재가 완료되면 완성이란 말을 사용해야 하는데 식물이 자라는 기간 즉, 시간이 흘러 포기가 커지고 꽃이 피고 땅이 피복되는 시점이 되어야 완성이라는 표현을 쓴다. 때문에 식물의 식재 본수를 일반적으로 3, 4치 포트를 이용해 ㎡ 당 16본이 정확한 본수라면 완성형이라 하여 30~50본을 식재하고 완성형이라 한다. 그러나 식물의 본수만 더 많이 심으면 완성이 될까?

필자는 많은 고민을 지금까지 해왔다. 이전 아녜데 하면서도 생육이 좋으니 안 좋으니 따지기는 고사하고 이제 3치니 4치니 하는 규격도 식물의 크기나 생육과는 무관하게 용기의 크기로 그 규격을 따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전에도 식물규격에 대한 제안을 한바 있지만 공감대를 형성하지는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았다. 하지만 정원개념이 도입되고 있는 이제야 조금씩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다시한번 완성형의 규격포트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다양한 크기의 용기에 재배되어지고 있는 정원식물들

생각을 해보자. 일반적으로 1㎡ 당 포기가 큰 역새의 경우 1본이면 훌륭하다. 최소한 4본이면 완성의 형태가 그대로 나타난다. 꽃창포로 예를 들면 20~30축을 한포기로 하는 경우 3본 혹은 6본이면

훌륭하게 완성된다. 옥잠도 10축 정도가 한포기라면 4본이면 매우 훌륭하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서 역새가 되었건, 꽃창포가 되었건 옥잠이 되었건 간에 위에서 말한 포기만큼 큰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는 큰 용기에 담아서 자란 상태로 유통이 되어야 한다. 물론 이렇게 되면 생산 농가의 경우 현재와는 다른 매우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형규격포트로 재배할 경우 3치포트의 경우보다 생산면적 대비 매출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가들은 이를 회피하고 생산 규격을 되도록 작게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재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운반 시에도 많은 비용이 추가로 부담이 된다. 그러나 조경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근래들어 조경박람회, 정원박람회에서 디스플레이용으로 다양한 품목의 규격포트가 이용되어 지고 있다.

발주자 측에서 보면 조경공사가 완료되면 그 효과를 바로 보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다. 특히 전원주택이나 도로의 쌈지공원이나 작은 면적의 공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효과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때문에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하면 어떻게 생각한다.

결론은 공사가 마무리 되면 경관도 완성이 되는 현상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설계자나 발주자의 의도가 완성이 된 후 정확하기도 확인 가능해 진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공사금액도 많은 경우 줄이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유는 예를 들어 공사기간이 아직 1년이 남은 상태에서 역새를 식재 했을 경우 그동안의 잡초관리는 물론 기타공정에 의해 파괴되거나 고사되는 경우 다

 ㎡ 당 2~4포기 정도면 완벽한 형태의 무늬역새

시 재식재해야 한다. 또, 완성이 된 후 식물체가 작다거나 식물을 더 심어야 한 다거나 하는 비용과 시간을 따진다면 전체적인 기회비용은 거의 비슷하거나 큰 포기를 식재 했을 때 오히려 더 절감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포기가 크다 해서 노지에서 바로 채취하여 현장반입이 되는 경우는 불가 하며 반드시 용기에 심겨진 상태로 뿌리가 제대로 활착되어 식재 후에 시든다거나 식물 품이 망가지서는 안 된다. 물론 이른 봄 아직 싹이 나오기 전 큰 포기를 용기에 옮겨진 경우는 예외라 할 수 있고 이때도 뿌리와 눈이 충분히 건 강한 상태여야 한다.



완성형의 규격 화분으로 식재하고 있는 모습



화분자체로 전시되어 있는 겉시초



큰 규격의 화분으로 재배되어 지고 있는 코레우리(좌)와 후룩스(우)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현재 몇몇 생산업체에서는 본격적인 대형식물포기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기위해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이번 기회를 빌려 많은 공감대와 참여가 있기를 다시 한 번 갈망하며 2016년부터는 이런 대형 규격의 상품이 현장에 많이 보급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대형화분으로 식재하면 공사가 마무리되었을때 완성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업'

종자 종묘 대표기업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많지만, 같은 가격으로
물품, 기술, 노하우를 함께 판매하는 기업은
CZ입니다.

종자	꽃묘	프러그	구근	조경용 수목
일반초화 종자 다년생초화 종자 야생화 종자 채소 종자 등	일반초화 꽃묘 다년생초화 꽃묘 야생화 꽃묘 등	일반초화 프러그 다년생초화 프러그 야생화 프러그 삽수 프러그 등	춘식구근 추식구근 등	연산홍 자산홍 남천 등



농업회사법인 (주)씨제트

대표전화 031-444-1488

팩스 031-444-1477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67 3층

홈페이지 www.czcorp.co.kr / 쇼핑몰 www.czmart.co.kr

정원으로의 여행 11

A trip to the garden

정원디자인 컨셉잡기

내 집 정원은 어떻게 꾸며야 할까? 막상 조그마한 정원이라도 만들려고 생각하다 보면 어떤 스타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고민이 많아진다. 평소에 눈 여겨 보던 정원이 있다면 한번쯤 자기만의 스타일로 바꾸어 봐도 좋겠지만 그것도 마음 먹은 대로 쉽게 되질 않는다. 디자이너들도 작품을 만들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컨셉(주제 및 개념) 잡기이다. 무턱대고 예쁜 식물만 사서 보기 좋아 보이는 곳에 심으면 금방 식물이 죽어버리거나 혹은 식물은 잘 자란다고 해도 아름다운 정원이 되기 힘들다. 그렇다면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컨셉을 잡아 나갈까?

컨셉을 잡기 전 디자인 진행과정을 거쳐 주제를 잡아 나간다.



Hampton court flower show- 쇼가든부분 : 좁은 공간이지만 정원을 만들기 충분하다.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벤치를 길게 디자인 하고 부족한 식재 공간을 의자 밑이나 뒤쪽 단을 만들어 배치하였다.



글 사진 가든디자이너 서수현
현 가든디자이너스튜디오 대표
영국 에섹스 대학교 가든디자이너 컨퍼런스 및 조경 석사
천안연말대, 건국대 정원관련 강의 및 정원멘토로 활동

Design Process

1. 의뢰인 질문사항
2. 정원 공간에 대한 조사 및 분석
3. 컨셉잡기 및 아이디어 조사
4. 정원 디자인 시작 - 2D, 3D
5. 식재 디자인



영국의 쇼가든에는 태국이나 중국, 일본 등 각 나라에서 후원을 받아 나라를 소개하려고 만드는 정원이 늘 전시된다. 사진의 쇼가든은 아스타섬의 모아이 석상과 그곳의 풍경 등을 나타낸 정원이다.



(창의 공작소의 아이들): 서플그린트러스트와 유한킴벌리에서 주관하여 녹색공간을 만드는 지원사업으로 만든 옥상정원이다. 이 정원의 이름은 달팽이 정원. 컨셉을 달팽이로 잡고 옥상정원을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 및 학습 정원으로 만들고 있다. 아이들이 직접 바닥이나 벽면을 페인팅하고 있다.

Client Brief(클라이언트 브리프)라고 부르는 의뢰인 질문사항은 제일 처음 진행하는 단계로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정원이 누구를 위한 정원인지, 좋아하는 식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자신이 정말 원하는 정원은 어떤 이미지인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아이들이 있거나 반려견이 있다면 그들이 즐기기에 안전하고 재미있는 정원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충분한 질문을 던져보았다면 그 다음으로 정원 만들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햇빛은 잘 드는 곳인지 식물을 심었을 때 배수가 용이한지 등 정원을 만들기에 적합한 장소인지를 확인 할 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고민해보는 과정이다. 보통 정원이 조성되어 있던 공간이거나 어떻게 정원을 만들어야 할지 몰라 비워둔 공간의 경우에는 토양에 영양분이 없어 식물을 심더라도 잘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땅따먹기 놀이 판. 정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식물만 심는 공간은 아니다. 식물과 사람이 같이 어우러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그것이 좋은 정원이 아닐까?

이럴 때는 위쪽의 흙을 30cm정도 파내고 새로운 흙을 덮어주는 것이 가장 좋다. 이때 사용하는 것으로 흔히 분갈이 할 때 쓰는 배합토를 쓰면 된다.

앞의 과정들을 끝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컨셉 잡기를 시작해 본다. 우선 Client Brief에 질문 사항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실용적인 면을 강조하거나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를 반영하는 정원스타일을 강조하는 방법이다. 실용적인 면을 강조한 정원이라 함은 아이들을 위한 놀이 정원,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힐링 정원, 먹거리를 내 손으로 직접 기르겠다고 생각하는 키친정원 등이 그것이다. 아름다운 한쪽의 그림같이 어떤 이미지를 상상하며 만드는 정원의 경우에는 영국식 혼합 식재 정원, 자연스러움을 강조한 자연 풍경식 정원, 조각상 등과 분수를 이용한 이탈리아 식 정원 등 각 나라별로 특징적인 스타일을 가져와 디자인하는 방법이 있다.

정원박람회처에서 꽃이라고 불리는 쇼가든(전시용 정원)의 경우 컨셉을 중요시 하는데 개인용 정원의 경우에도 컨셉을 잡고 정원을 만들게 되면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갖게 되어 보기 좋은 정원을 만들 수 있다.

무턱대고 컨셉을 잡아가지 하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머리 속이 새하얗다. 필요한 것 혹은 내가 원하던 정원과 관련된 키워드를 생각해 보자. 연관된 단어들을 적어 내려가다 보면 공통적으로 묶일 수 있는 단어들이 있다. 그것으로 주제를 정하고 정원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좀더 쉽게 컨셉을 잡아나갈 수 있다.



'난 정원을 만들 공간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버려지는 공간들이 많다. 이곳은 콘크리트 바닥인 옥상이지만 아이들의 재미있는 그림으로 생기가 도는 정원으로 탈바꿈 하고 있다. 식물은 이곳에 맞게 화분을 제작하여 식재 하였다.

만약 식물을 심을 공간이 없다면? 옥상정원이나 건물 안 버려지는 공간에도 정원을 만들수 있다. 흙을 담을 수 있는 화분을 직접 제작하여 식물을 심고 나머지 공간은 페인팅을 한다거나 소품을 이용하여 꾸밀 수 있다. 단, 이곳에도 자신만의 컨셉이 있으면 효과적으로 정원을 만들기가 쉬워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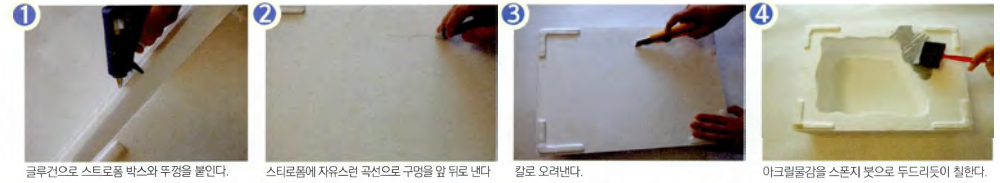
정원 디자인을 배우는 어른들은 대부분 자연스러운 정원을 선호한다. 우리나라 풍경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 집 정원으로 옮겨오고 싶어 한다. 어쩌면 그것은 자연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한번쯤 아이들처럼 동심에 빠져 보는 것은 어떨까? 정원은 꼭 이래야 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색다른 나만의 정원을 만들어 봐야지' 라고 생각함으로써 쉽게 정원 만들기에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스티로폼 박스를 활용한 액자 정원



글 사진 우정아
가든 코디네이터 / KHDA(한국원예디자인협회)
함원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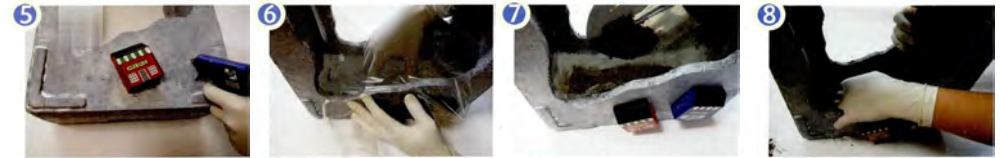


1 글루건으로 스티로폼 박스와 우정을 붙인다.

2 스티로폼에 저유선 곡선으로 구멍을 앞 뒤로 낸다

3 칼로 오려낸다.

4 아크릴물감을 스펀지 붓으로 두드려듯이 칠한다.



5 다 마르면 앞쪽으로 소품을 붙인다.

6 OPP를 깔아준다.

7 마사토를 배수층을 만들어 준다.

8 코코넛 피트모스를 1cm 정도 깔아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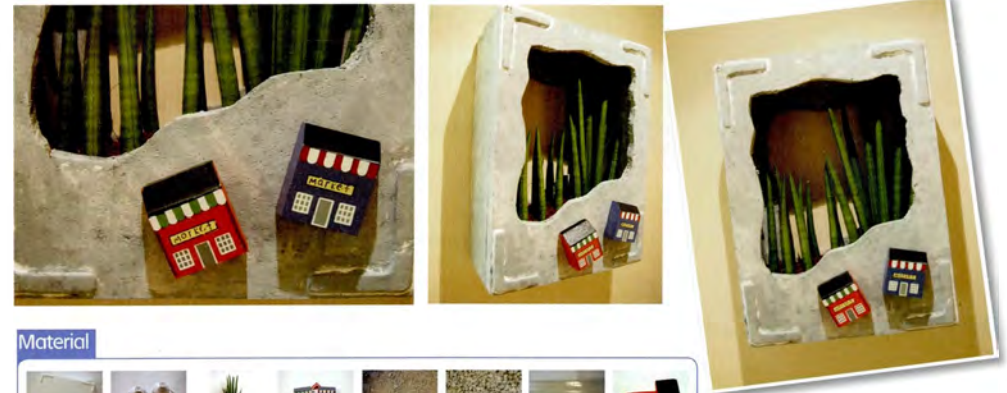
9 스투키를 포트에서 분리하고 식재한다.

10 식재가 끝나면 붓으로 흙을 밀어준다.

11 코코넛 피트모스에 충분히 물을 준다.

>> 관리법

스투키는 20도~25도에 생육이 좋고, 10도 이하에서는 생해를 일으키므로 온도 관리가 중요하고, 다육질 이 많은 식물이므로 잦은 관수는 피하고, 핑거테스트 후 흙이 바짝 말랐을 때 관수하는 것이 좋다. 생육이 좋을 때는 포기 나누기를 해서 잎과 잎 사이에 공간을 두어 통풍이 잘 되게 해주어야 병해충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심육(잎꽃)이 잘 되는 종류로 뿌리 쪽이 무르면 잎부분만 잘라 음지에서 자란 부분을 말린 후 다시 심어 주면 잘 자란다.



Material



COLOUR IN THE GARDEN

Red Flowers



빨강은 정열과 흥분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다이내믹한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호등에서의 이미지는 위험이나 경고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애정을 표현 할때는 빨간 장미를 선물하기도 한다. 미국의 색채학자 비렌 (Faber Birren, 1954)의 연구 결과에 보면 빨간색의 환경에 놓이면 심장박동수가 높아진다고 하는 보고가 있다.

빨강은 이렇듯 정열, 흥분, 자신감, 위험, 경고, 따뜻함, 애정 등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주변에는 빨간색을 갖고 있는 식물의 종류가 많다. 화단에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색 중에 하나인 빨간색의 꽃들(Red Flowers), 때론 같으면서도 때론 다른 느낌을 선사하는 다양한 빨간색의 느낌을 살려 화사하면서도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레드정원(Red Garden)을 만들어 보자.

오도

품목학교생태농업전공부 교사 / 일본 惠泉女學園園藝生活學科에서 화단설계 전공, 전 여미지식물원, 천리포수목원 근무



일본당단풍

Acer japonicum
단풍나무과·낙엽활엽교목
▶ 5월 순 3월, 10월 ↑ 8m



단풍나무 '크리피'

Acer palmatum 'Crispi'
단풍나무과·낙엽활엽교목
▶ 6월 순 3월, 10월 ↑ 8m



안스라움 '레드 러브'

Anthurium 'Red Love'
천남성과·속근초(온실)
▶ 월 순 4월, 10월 ↑ 0.5-1m



코키네아안틸리스

Antyllis vulneraria var. coccinea
콩과·속근초
▶ 5월 순 4월, 10월 ↑ 0.5m



노루오줌 '파남'

Antyllis x arendsii 'Fanal'
범의귀과·속근초
▶ 6월 순 4월, 10월 ↑ 0.5-0.8m



베고니아 '콤테 데 레쎄스'

Begonia 'Compte de Lessert'
베고니아과·속근초(온실)
▶ 자유롭게 개화 순 4월, 10월 ↑ 1.2m



베고니아 '플로벨레 모셀리'

Begonia 'Flabelle Moseley'
베고니아과·속근초(온실)
▶ 자유롭게 개화 순 4월, 10월 ↑ 1.2m



베고니아 '시서펜트'

Begonia 'Sea Serpent'
베고니아과·속근초(온실)
▶ 자유롭게 개화 순 4월, 10월 ↑ 1.2m



동백 '아부투스 Gum'

Camellia 'Arbutus Gum'
차나무과·상록활엽소교목
▶ 12-5월 순 3월, 10월 ↑ 소교목



동백 '그랜드 슬램'

Camellia japonica 'Grand Slam'
차나무과·상록활엽소교목
▶ 12-5월 순 3월, 10월 ↑ 소교목



동백 '니그라'

Camellia japonica 'Nigra'
차나무과·상록활엽소교목
▶ 12-5월 순 3월, 10월 ↑ 소교목



푸푸레아 동백

Camellia purpurea
차나무과·상록활엽소교목
▶ 12-5월 순 3월, 10월 ↑ 소교목



동백 '사탄스 로스'

Camellia 'Satan's Rose'
차나무과·상록활엽소교목
▶ 12-5월 순 3월, 10월 ↑ 소교목



윌리엄지 동백 '프리덤 벨'

Camellia x williamsii 'Freedom Bell'
차나무과·상록활엽소교목
▶ 12-5월 순 3월, 10월 ↑ 2m



명자꽃(산당화)
Chaenomeles speciosa
장미과·낙엽활엽관목
▶ 3-5월 수 3월, 10월 ↑ 1.5m



수퍼바 명자꽃 '니콜라인'
Chaenomeles x superba 'Nicoline'
장미과·낙엽활엽관목
▶ 3-5월 수 3월, 10월 ↑ 1.5m



수퍼바 명자꽃
Chaenomeles x superba
장미과·낙엽활엽관목
▶ 3-5월 수 3월, 10월 ↑ 1.5m



흰말채나무 '시비리카'
Cornus alba 'Sibirica'
층층나무과·낙엽활엽관목
▶ 5-6월 수 3월, 10월 ↑ 1.5-3m



다알리아
Dahlia sp.
국화과·속근초
▶ 7-8월 수 4월, 10월 ↑ 0.5-1m



체리엘리눔 '블러드 레드'
Erysimum cheiri 'Blood Red'
심자화과·일년초
▶ 4-5월 수 3월, 10월 ↑ 0.5-1m



포인세티아 '레기나'
Euphorbia pulcherrima 'Regina'
대국과·일년초
▶ 12월 수 11월 ↑ 0.5-1m



아덴스 제라니움
Geranium x ardens
쥐손이풀과·속근초
▶ 6-8월 수 4월, 10월 ↑ 0.5-1m



글라디올러스 '비네타'
Gladiolus 'Bianella'
붓꽃과·속근초
▶ 6-7월 수 4월, 10월 ↑ 1-1.5m



헬리안세움 '헨필드 브릴란트'
Helianthemum 'Hensfield Brilliant'
장미과·속근초
▶ 4-6월 수 3월, 10월 ↑ 0.5-0.8m



코스시네아오우리시아
Cuscuta coccinea
질경이과·속근초
▶ 5-6월 수 3월, 10월 ↑ 0.5-1m



퍼레그리나 작약
Paeonia peregrina
장미과·속근초
▶ 5-8월 수 3월, 10월 ↑ 0.8-1.2m



레기아메코넬시스
Meconopsis regia
양귀비과·속근초
▶ 5-6월 수 3월, 10월 ↑ 0.8-1m



코시네아오우리시아
Cuscuta coccinea
질경이과·속근초
▶ 5-6월 수 3월, 10월 ↑ 0.5-1m



퍼레그리나 작약
Paeonia peregrina
장미과·속근초
▶ 5-8월 수 3월, 10월 ↑ 0.8-1.2m



아우리클라앵초 '팬페어'
Primula auricula (swiss bell) 'Fanfare'
앵초과·속근초
▶ 3월 수 3월, 10월 ↑ 40m



아시아티쿠스 미나리아재비
Ranunculus asiaticus
미나리아재비과·속근초
▶ 3-5월 수 3월, 10월 ↑ 0.5-1m



만병초 '카르멘'
Rhododendron 'Carmen'
진달래과·상록활엽관목
▶ 4-6월 수 3월, 10월 ↑ 1-1.5m



만병초 '엘리자베스'
Rhododendron 'Elizabeth'
진달래과·상록활엽관목
▶ 4-6월 수 3월, 10월 ↑ 1-3m



스페키오움 까치밥
Ribes speciosum
범의귀과·낙엽활엽관목
▶ 4-5월 수 3월, 10월 ↑ 1-2m



장미 '파크디렉터 리저스'
Rosa 'Parkdirektor Riggers'
장미과·낙엽활엽관목
▶ 6-7월 수 3월, 10월 ↑ 8m



장미 '코펜'
Rosa 'The Times Rose' 'Korpechri'
장미과·낙엽활엽관목
▶ 6-7월 수 3월, 10월 ↑ 2m



장미 '윌헬름'
Rosa 'Wilhelm'
장미과·낙엽활엽관목
▶ 6-7월 수 3월, 10월 ↑ 8m



까꽃 '반호테'
Salvia splendens 'Van-Houttei'
꿀풀과·일년초
▶ 5-8월 수 3월, 10월 ↑ 0.5-1m



자포니카스키미아 '세실리아 브라운'
Skimmia japonica 'Cecilia Brown'
운향과·상록활엽관목
▶ 4월 수 3월, 10월 ↑ 1-2m



자포니카스키미아 '세실리아 브라운'
Skimmia japonica 'Cecilia Brown'
운향과·상록활엽관목
▶ 4월 수 3월, 10월 ↑ 1-2m



자포니카스키미아 '세실리아 브라운'
Skimmia japonica 'Cecilia Brown'
운향과·상록활엽관목
▶ 4월 수 3월, 10월 ↑ 1-2m



튤립종류
Tulipa sp.
백합과·속근초
▶ 5월 수 10월 ↑ 0.5-0.8m



서브프랜탄스 튤립
Tulipa subpraestans
백합과·속근초
▶ 5월 수 10월 ↑ 0.5m



자작잎꽃나무
Viburnum betulifolium
인동과·낙엽활엽관목
▶ 4-5월 수 3월, 10월 ↑ 2-3m

10%
~20%
OFF
인하

정기구독 안내

[구입처]

오프라인 서점
교보문고

광화문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영등포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종로 15 타임스퀘어 멀티플렉스 2층
강남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교보타워 지하1, 2층
목동점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지하 1층
잠실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롯데 캐슬프라자 지하1층
인천점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38 이도타워 지하 1층
부천점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연로 1 부천역사 7층
안양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11 CGV 1번가 5.6층
분당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로 분당로 55 분당파스트타워 지하1층
천안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3층
대구점 :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586 교보생명빌딩 지하1층
센텀시티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35 신세계 센텀시티 5층
부산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58 교보생명빌딩 지하 1층
창원역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4 마이우스 빌딩 지하1층
영풍문고 잠실점, 영광도서(부산), 남포문고(부산), 녹산문고(수원)

온라인 인터넷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 알라딘 www.aladin.co.kr

[입금방법]

카드 결제 및 문의사항 : 031-712-7009

무통장입금

예금주 : 우리꽃영농조합법인
농협 355-0030-2359-03

▶ 입금 후 반드시 주소와 성명을 알려주셔야 배송가능합니다.

[정기구독방법]

1년 16.6% 할인 (100,000원)
2년 20% 할인(192,000원)

Gardenin

발행처 우리꽃영농조합법인
발행인 김영채 경희대학교 명예 교수 / 농학박사
박공영 우리씨드(Uniseed)그룹 대표 이학박사
고문 이순영 前 함평 농업기술센터 소장
편집인 서준혁
주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전화 031-712-7009
팩스 031-634-7991
전문위원
김광두 농학박사 / 前상명대학교 겸임교수
김광춘 대림원예종묘(주)대표
김귀순 (주)그린페이퍼 대표
박신애 건국대 생명환경과학대 교수
안완식 농학 박사 씨드림대표
우정아 가든 코디네이터 한국원예디자인협회 향원화장
유봉수 솔개그늘 대표
윤정식 대한아로마테라피학회 회장
윤평섭 농학박사 / 상명대학교 명예 교수
이정식 농학박사 / 前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이중식 농학박사 / 서울여자대학교 명예 교수
최주권 농학박사

디자인&인쇄 워킹카우42 Workingcow42@naver.com
010 7399 5488



국내최초

허브&아로마테라피 교육체험센터 생활의 향기



Since 2006

<주요사업>

허브힐링 건강세미나(기업체, 단체)

- 허브향기로 스트레스를 싸~악 날려버리자!

허브힐링 인성·진로 교육(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 허브힐링을 통한 마음치유와 건강하고 목표가 있는 삶!

- 허브 조향사 진로 교육

허브 & 아로마 교육 체험학습

- 허브비누

- 허브향수(안티스트레스, 집중력 등)

- 허브스프레이(호흡기, 근육 등)

- 아토피 연고, 호흡기 연고, 천연 립밤 등

- 천연 에센스, 스킨, 로션 등 허브 화장품

직영 매장

보광 휘닉스파크 블루동 1층
- 허브체험센터, 아로마 캔들하우스

상호 협력기관

대한아로마테라피학회(www.aromatherapy.or.kr)
- 아로마테라피 실용전문교육기관으로 아로마 자격증 발급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죽엽산로 493(고모리 183)

Tel.031-544-7084 Fax.031-544-7086

www.aromainlife.com

Nice to  you!

우리씨드

정원용 고급 종자

100



월간가든인원에정원전문잡지



우리꽃연구소
URISEED INSTITUTE

467-872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Tel 031.634.7990 Fax 031.634.7991 www.gardenjoa.com (100선 사진 자료)